

41.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이 78.3%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이 해외동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2)	(2)	(102)	(3)	(164)	(4)	(20)	(7)
79.1%	92.0%	62.9%	83.3%	100.0%	81.4%	100.0%	75.0%	100.0%	85.0%	57.1%
17.8%	4.0%	31.4%	8.3%		14.7%		22.0%		15.0%	28.6%
.4%							.6%			
2.8%	4.0%	5.7%	8.3%		3.9%		2.4%			14.3%

국적별로는 조선이 92.0%, 한국이 79.1%, 일본이 62.9%이다. 이는 국적별로 통일의식이 다르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대별로 드러나는 통일의식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부터 3세대로 내려가면서 통일 문제를 삶의 윤택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4세대에 가서는 다시 1세대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1세대는 통일조국으로의 귀속의식과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의식이 있고, 현재의 젊은 세대는 돌아갈 조국도 없고 자신을 반기는 모국도 없는 “립보”¹⁾ 상태이다(량[Ryang], 2002)”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통일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통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먼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분단”이다. 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음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조선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남북 분단의 문제(51.6%)→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11.8%→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8.6%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7.6% → 경제적인 곤란 7.6%. 그런데 1위인 남북 분단의 문제(51.6%)와 2위인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11.8%”이라는 인식은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단 문제와 그로 인한 전통문화 훼손과 단절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단일민족산화를 고집하는 일본사회에 제일한인은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즉 “한인의 고유한 민족문화, 언어, 관습을 억제하고 일본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일본의 굴욕적인 동화정책에 반대”²⁾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채려 고려인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5.2%”로 제일 조선인의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11.8%”비율과 비교하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채려 고려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제일 조선인은 남북 분단의 문제(51.6%)가 채려 고려인의 비율(69.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려 고려인은 남북 분단(69.6%)과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12.6)이 1, 2위를 차지한다는 점에

1) . [[U]] (가톨릭) [종중 L~] 지옥의 변방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으며 그리스도교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백치 등의 영혼이 머무는 곳))
 2)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150쪽.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재일 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은 통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남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즉 통일에 대한 역사 의식은 자신들이 성장해온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특수성과 동시에 역사적 공통성이 함께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47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 사례수				(314)
AQ47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	남북 분단	열 N %		51.6%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열 N %		7.6%
	경제적인 곤란	열 N %		7.6%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열 N %		11.8%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열 N %		8.6%
	중복응답	열 N %		8.0%
	무응답	열 N %		4.8%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50.6%	68.0%	45.7%	100.0%	58.3%	100.0%	48.0%	66.7%	50.6%	50.0%	75.0%	28.6%
7.5%	4.0%	11.4%				8.8%		6.7%		10.0%	28.6%
7.5%		14.3%				9.8%		7.9%			14.3%
12.6%	4.0%	11.4%				13.7%		11.6%	50.0%	5.0%	14.3%
7.9%	12.0%	11.4%		16.7%		4.9%	33.3%	10.4%		10.0%	
9.1%	8.0%					13.7%		6.7%			
4.7%	4.0%	5.7%		25.0%		1.0%		6.1%			14.3%

또한 국적별로도 어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조선, 한국, 일본 순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세대별로도 주목할 점은 모든 세대보다 4세대가 가장 크게 남북 문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남북 문제를 세대가 지날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43.3%가 “분단 극복과 통일”이고 **20.7%**가 “북-일, 북-미 수교”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재일 조선인의 이러한 비율은 재러 고려인이 대답한 “분단 극복과 통일”(6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재일 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의 경우 모두 식민지 지배의 주요 청산 과제로 분단 극복과 통일,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일, 북-미 수교”라는 대답한 것에서도 **공통성**을 보인다.

				T1 Total (전체)
AQ48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사례수				(314)
AQ48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분단 극복과 통일	열 N %		43.3%
	자주적 외교	열 N %		8.9%

한국 내의 친일과 청산	열 N %	2.5%
북-일, 북-미 수교	열 N %	20.7%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열 N %	10.2%
중복응답	열 N %	5.1%
무응답	열 N %	9.2%

2)재일 조선인은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 민족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전체의 87.9%, “다소 피해를 입었다”10.2%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재일 조선인의 경우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전체의 87.9%인 반면에 재러 고려인은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전체의 59.8%로 나타나므로 분단과 전쟁은 재일 조선인에게 더 많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56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	사례수	(314)
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AQ56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열 N %	87.9%
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다소 피해를 입었다 열 N %	10.2%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열 N %	.6%
	무응답 열 N %	1.3%

또한 국적별로도 조선 96.0%, 한국89.3%, 일본71.4%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4세대가 1세대보다 높게 드러난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남북 분단 문제를 선택한 것과 연관된다. 즉 4세대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로 “남북 문제”(75.0%)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의식은 자신들이 전세대보다 전쟁에 대한 체험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드러나듯이 4세대는 85.0%로 1세대보다는 높으며, 2,3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89.3	96.0	71.4	100.0	66.7	100.0	90.2	100.0	89.0	100.0%	85.0%	57.1%
%	%	%	%	%	%	%	%	%			
8.3%	4.0%	28.6		25.0		6.9%		10.4		15.0%	28.6%
.8%		%		%				%			
1.6%				8.3%		1.0%		.6%			14.3%

		T1 Total (전체)
AQ57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사례수	(314)

AQ57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그렇다	열 N %	83.1%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	아니다	열 N %	15.0%
다	중복응답	열 N %	.3%
	무응답	열 N %	1.6%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조선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83.1%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15.0%이다. 재러 고려인도 81.0%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재일 조선인과 재러 고려인모두 유사한 대답을 하고 있다. 재일 조선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조선 **92.0**, 한국 84.2, 일본 68.6 순위이다. 이는 국적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 국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직접적인 자신의 체험과 거리가 멀거나 혹은 자신의 현실적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의 의식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4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75.0%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치에서 드러나듯이 일반적으로 높게 드러나고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84.2	92.0	68.6	100.0	91.7	100.0	92.2	66.7	79.3	75.0%	75.0%	57.1%
%	%	%	%	%	%	%	%	%	%	%	%
13.4	8.0%	31.4		8.3%		5.9%	33.3	18.9	25.0%	25.0%	28.6%
%		%					%	%			
.4%								.6%			
2.0%						2.0%		1.2%			14.3%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otal (전체)
AQ43 동북아시아지역의	사례수		(314)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			
AQ43 동북아시아지역의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열 N %	13.7%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열 N %	23.2%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열 N %	15.3%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열 N %	6.7%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	열 N %	21.0%
	는 것		
	중복응답	열 N %	16.6%
	무응답	열 N %	3.5%

이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23.2%,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21.0%,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

하려는 것이 15.3%이다. 이러한 비율은 재러 고려인과 비교해서 볼 때, 다소 낮긴 하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동일하게 나타났다.³⁾ 나아가 조선 국적은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32.0%), 한국 국적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24.9%), 일본국적은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4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로도 차이가 드러난다. 1세대, 2세대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에 각각 33.3%, 29.4%이고 3세대는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24.4%)가장 높다. 그런데 4세대는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25.0%,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20.0%),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25.0%)로 선택하여 다른 세대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4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미국의 패권유지를 동북아 지역 평화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14.2%	24.0%	2.9%		25.0%		15.7%	33.3%	10.4%	25.0%	25.0%	
24.9%	12.0%	17.1%	100.0%	33.3%	100.0%	29.4%		19.5%		20.0%	14.3%
			%		%						
13.4%	32.0%	17.1%				13.7%	33.3%	15.9%	50.0%	25.0%	
7.1%		8.6%		8.3%		6.9%		7.3%	25.0%		
20.6%		40.0%				17.6%		24.4%		15.0%	71.4%
16.2%	28.0%	11.4%		25.0%		14.7%	33.3%	18.3%		15.0%	
3.6%	4.0%	2.9%		8.3%		2.0%		4.3%			14.3%

따라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가 41.1%, 그렇다가 47.1%로 그렇지 않다 9.2%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T1 Total (전체)
AQ44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14)
AQ44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매우 그렇다.	열 N % 41.1%
그렇다.	열 N % 47.1%
그렇지 않다.	열 N % 9.2%
중복응답	열 N % .6%
무응답	열 N % 1.9%

그런데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대답에는 국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일본 국적은 한국 국적에 비하여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4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3) 재러 고려인인 경우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34.4%,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32.8%,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17.8%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비율이 **15.0%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대보다 **남북통일**의 문제를 다른 세대보다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에 대한 의식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약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4세대도 압도적으로 남북통일의 문제를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41.1%	(25) 56.0%	(35) 28.6%	(1) 100.0%	(12) 41.7%	(2)	(102) 45.1%	(3) 100.0%	(164) 39.6%	(4) 50.0%	(20) 40.0%	(7)	
46.2%	44.0%	57.1%		41.7%	100.0%	47.1%		47.6%	50.0%	40.0%	71.4%	
9.5%.8%		14.3%		8.3%		7.8%		9.8%.6%		15.0%5.0%	14.3%	
2.4%				8.3%				2.4%			14.3%	

나아가 이러한 남북문제의 중요성은 모든 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의 분단 국가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T1 Total (전체)
AQ58 남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례수		(314)
AQ58 남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열 N %	28.7%
	그렇지 않다	열 N %	28.3%
	모르겠다	열 N %	41.7%
	중복응답	열 N %	
	무응답	열 N %	1.3%

그러므로 남북통일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남북의 분단국가 자신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그렇다 28.7% ② 그렇지 않다 28.3% ③ 모르겠다 41.7%가 답변하였다.

			T1 Total (전체)
AQ59 북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례수		(314)
AQ59 북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열 N %	46.2%
	그렇지 않다	열 N %	18.2%
	모르겠다	열 N %	34.1%
	중복응답	열 N %	.3%
	무응답	열 N %	1.3%

반면에 59. 북조선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그렇다46.2%, 그렇지 않다18.2%, 모르겠다34.1%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동포들을 이용하는 정권은 남한 보다는 북한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았다. 이는 재러 고려인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러 고려인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해외동포를 더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첫째는 역사적으로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는 인식이며, 둘째는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며, 셋째는 남북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통일의 장애 요인과 분단 지속의 원인

전체적으로 통일의 장애요인을 국제 열강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에서 찾고 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책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책임이 강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조선의 책임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재러 고려인과는 구별점이 두드러진다. 재러 고려인의 경우는 조선과 미국 책임을 각각, 54.9%, 26.1%로 드러난다. 즉 재러 고려인은 통일의 장애 요인을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요인보다는 조선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재일 조선인은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유사한 비율로 조선이라는 내부에 통일의 장애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27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사례수	(314)
AQ27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한국(남한)	열 N % 1.9%
	조선(북조선)	열 N % 31.8%
	미국	열 N % 28.3%
	일본	열 N % 6.1%
	중국	열 N % 6.7%
	러시아	열 N % 1.6%
	중복응답	열 N % 17.8%
	무응답	열 N % 5.7%

그리고 통일 장애요인으로는 국적별로도 차이점이 드러난다. 조선 국적은 미국에 압도적인 책임을,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4세대**가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50.0%**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동시에 4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북한의 책임이 큰 차이로 약하게 드러난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0%	(25) 4.0%	(35) 2.9%	(1)	(12) 41.7%	(2) 50.0%	(102) 30.4%	(3) 66.7%	(164) 34.8%	(4) 25.0%	(20) 5.0%	(7) 57.1%	
33.6%	56.0%	40.0%		25.0%	50.0%	22.5%	33.3%	29.3%	25.0%	50.0%	28.6%	
26.1%	5.5%	25.7%	100.0	8.3%		8.8%		4.3%	25.0%	5.0%		

6.3%	4.0%	11.4%	%		50.0%	4.9%		7.9%		10.0%
1.6%		2.9%				2.0%		1.8%		
18.6%	20.0%	11.4%		8.3%		25.5%		14.6%		25.0%
6.3%		5.7%		16.7%		4.9%		4.9%	25.0%	5.0%
										14.3%

			T1 Total
			(전체)
AQ28 남과 북 중 분단 지속의 책임 소재	사례수		(314)
AQ28 남과 북 중 분단 지속의 책임 소재	한국(남한)	열 N %	22.0%
	조선(북조선)	열 N %	55.7%
	중복응답	열 N %	4.1%
	무응답	열 N %	18.2%

그런데 “28.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한국22.0%이 북조선55.7%보다는 낮다. 북조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러 고려인의 비율(54.9%)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국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은 분단 지속의 책임을 북조선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조선국적**은 60.0%가 남한의 책임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세대별로도 1-3세대까지는 북조선의 책임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4세대에서는 그 전 세대와는 전혀다른 인식을 드러낸다. 즉 **4세대**는 분단 지속의 책임이 **남한60.0%**, 북한25.0%으로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AQ27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라는 항목에서 4세대가 미국을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하면서도 분단 **지속의 원**은 남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4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므로 이후의 통일 교육의 방향점을 제시한다. 즉 무조건적인 친미, 혹은 반복적 내용으로는 더 이상 이들 세대에게 통일 교육으로는 적절하게 않다는 것이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19.4%	60.0%	14.3%			50.0%	22.5%	33.3%	18.9%	25.0%	60.0%	
58.1%	12.0%	71.4%		58.3%	50.0%	54.9%	66.7%	59.8%	25.0%	25.0%	71.4%
3.6%	4.0%	5.7%	100.0%	8.3%		4.9%		3.0%	25.0%		14.3%
			%								
19.0%	24.0%	8.6%		33.3%		17.6%		18.3%	25.0%	15.0%	14.3%

18. 한국과 북조선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한국65.9%, 북조선4.5%, 둘 다 똑같다.28.7%이다. 국적별로는 한국, 일본국적이 각각 **71.1%** , 71.4%로 한국에 호감을 드러낸 반면에, **조선 국적**은 북한32.0%, 둘 다 똑같다라는 항목에는 60.0%로 남한 보다는 북한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대별로는 3세대까지는 남한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4세대**에서는 남한40.0%, 북한20%, 둘 다 똑같다40.0%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보다 남한에 더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이 단일성에서 이중 정체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18 남과 북 중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사례수		(314)
AQ18 남과 북 중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한국(남한)	열 N %	65.9%
	조선(북조선)	열 N %	4.5%
	둘 다 똑 같다.	열 N %	28.7%
	무응답	열 N %	1.0%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71.1%	8.0%	71.4%		83.3%	100.0%	66.7%	66.7%	67.1%	50.0%	40.0%	71.4%
2.4%	32.0%					6.9%		1.8%		20.0%	
26.1%	60.0%	25.7%		8.3%		25.5%	33.3%	30.5%	50.0%	40.0%	28.6%
.4%		2.9%	100.0%	8.3%		1.0%		.6%			

		T1 Total	
		(전체)	
AQ19 '한국(남한)'에 더 호감이 가는 이유	사례수		(207)
AQ19 '한국(남한)'에 더 호감이 가는 이유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열 N %	10.1%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열 N %	1.0%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한국대중문화가 좋기 때문에	열 N %	6.8%
	내 조상의 고향이 한국(남한)이기 때문에	열 N %	55.6%
	친인척이 현재 한국(남한)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열 N %	11.6%
	중복응답	열 N %	10.6%
	무응답	열 N %	4.3%

18번에서 '한국'을 선택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④ 내 조상의 고향이 한국이기 때문에55.6%가 다른 항목들(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한국대중문화가 좋기 때문에, 친인척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상의 고향을 선택하고 있다. 국적별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4세대는 다른 세대와 유사하게 내 조상의 고향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로 같지만, 다른 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한국대중문화가 좋기 때문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 호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점차적으로 혈연에서 문화적 선호에 따라서 달라 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정체성의 규정 요소가 더 이상 혈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180)	(2)	(25)	(0)	(10)	(2)	(68)	(2)	(110)	(2)	(8)	(5)
11.1%		4.0%		20.0%		10.3%		8.2%	50.0%	12.5%	20.0%
1.1%								1.8%			
5.6%		16.0%				1.5%		8.2%		37.5%	20.0%
56.7%	50.0%	48.0%		40.0%	50.0%	55.9%	100.0%	57.3%	50.0%	50.0%	40.0%
11.7%		12.0%		30.0%	50.0%	13.2%		9.1%			20.0%
10.6%		12.0%		10.0%		17.6%		8.2%			
3.3%	50.0%	8.0%				1.5%		7.3%			

정체성: 1. 내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선반도29.9%, 대한민국 22.3%**, 일본과 조선반도 20.4%, 일본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4.1%라고 응답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 조선국적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다소 높고 일본 국적인 일본을 선택한 것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적과 조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1-2세대까지는 대한민국,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만, 3세대는 조선반도, 일본과 조선반도가 비중이 크다. 그런데 4세대는 조선반도를 선택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25.0%로 같다는 점이다. 그 다음이** 일본과 조선반도20.0% 순위이다. 전 세대에 비하여 4세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1 조국 선택	사례수		(314)
AQ1 조국 선택	일본	열 N %	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N %	4.1%
	대한민국	열 N %	22.3%
	조선반도	열 N %	29.9%
	일본과 조선반도	열 N %	20.4%
	중복응답	열 N %	5.4%
	무응답	열 N %	1.0%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15.4%		40.0%		16.7%		13.7%		16.5%	25.0%	10.0%	100.0%
2.8%	24.0%					3.9%		2.4%		25.0%	
24.5%	8.0%	17.1%		41.7%	50.0%	29.4%	33.3%	18.3%		15.0%	
30.8%	52.0%	5.7%	100.0%	41.7%	50.0%	32.4%	33.3%	29.3%	25.0%	25.0%	
20.6%	8.0%	28.6%				11.8%		28.0%	50.0%	20.0%	
4.7%	8.0%	8.6%				6.9%	33.3%	4.9%		5.0%	
1.2%						2.0%		.6%			

AQ2 조국 선택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39.2%,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가 20.4%이다. 그러나 국적별로는 한국, 조선 국적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와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가 1, 2위를 차지하지만, 일본 국적인 경우에는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가 1,2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세대별로는 2,3,4세대는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가장 비율이 크고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가 다음 순위이다. 이에 비하여 1세대는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가 1위이고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가 2위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4세대는 그 전세대와는 다르게 조국 선택의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다.

			T1 Total
			(전체)
AQ2 조국 선택의 이유	사례수		(314)
AQ2 조국 선택의 이유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열 N %	15.6%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 N %	4.1%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 N %	39.2%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열 N %	20.4%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열 N %	1.3%
	중복응답	열 N %	16.9%
	무응답	열 N %	2.5%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15.4%	4.0%	25.7%		58.3%	50.0%	11.8%		14.0%		10.0%	57.1%
3.2%		14.3%		8.3%		3.9%		3.7%		28.6%	
39.5%	48.0%	31.4%				42.2%	66.7%	42.1%	25.0%	40.0%	
21.3%	28.0%	5.7%	100.0%	25.0%	50.0%	19.6%		19.5%	50.0%	25.0%	14.3%
			%								
1.6%				8.3%				1.2%		5.0%	
16.6%	16.0%	20.0%				18.6%	33.3%	17.7%	25.0%	15.0%	
2.4%	4.0%	2.9%				3.9%		1.8%		5.0%	

3. 분단 지속 원인

			T1 Total
			(전체)
AQ29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314)
AQ29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열 N %	24.5%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	열 N %	20.7%
	에		
	한국(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조	열 N %	12.7%

선)을 봉쇄하기 때문에	열 N %	25.2%
조선(북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 N %	13.7%
중복응답	열 N %	3.2%
무응답	열 N %	

29.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2%, 한국과 북조선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24.5%,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20.7%, 한국이 미국편에서 북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 12.7%” 순위이다. 그런데 국적 별로는 한국은 한국과 북조선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조선국적은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일본 국적은 “북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목에 비율이 크다. 특징적인 것은 4세대는 1,2,3세대와는 달리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45.0%)”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서 확인 했듯이 4세대가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50.0%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과 연관되는 점이다. 즉 4세대는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열강의 주요한 국가로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6.5%	16.0%	17.1%		33.3%	50.0%	17.6%	33.3%	28.0%		25.0%	28.6%
19.0%	44.0%	17.1%			50.0%	25.5%		15.9%	50.0%	45.0%	14.3%
11.9%	20.0%	11.4%	100.0%	33.3%		12.7%	33.3%	11.0%	25.0%	15.0%	
25.3%		42.9%	%	16.7%		25.5%	33.3%	27.4%		5.0%	57.1%
13.8%	16.0%	11.4%				15.7%		14.6%	25.0%	10.0%	
3.6%	4.0%			16.7%		2.9%		3.0%			

4. 분단극복의 현시기 과제와 통일정책

		T1 Total
		(전체)
AQ32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	사례수	(314)
국(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한가?		
AQ32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	매우 그렇다	열 N % 24.8%
국(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그렇다	열 N % 51.9%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열 N % 22.0%
	중복응답	열 N % .3%
	무응답	열 N % 1.0%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7.7%	16.0%	11.4%		16.7%		22.5%	66.7%	26.2%	50.0%	25.0%	14.3%
51.0%	64.0%	48.6%	100.0	41.7%	50.0%	56.9%	33.3%	53.0%	25.0%	35.0%	42.9%
			%								
20.9%	20.0%	31.4%		41.7%	50.0%	20.6%		19.5%	25.0%	30.0%	42.9%
.4%		8.6%						.6%			
								.6%		10.0%	

32.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는 매우 그렇다24.8%, 그렇다 51.9%, 그렇지 않다22.0% 이다. 국적별로는 일반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생각이 높았다. 그런데 세대별로는 2,3세대는 보다 1,4세대가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높았다.

		T1 Total	
		(전체)	
AQ33 현재 한국(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례수	(314)
AQ33 현재 한국(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열 N %	2.9%
	그렇다	열 N %	13.4%
	그렇지 않다	열 N %	51.6%
	매우 그렇지 않다	열 N %	28.0%
	중복응답	열 N %	.6%
	무응답	열 N %	3.5%

그런데 33. 현재 한국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그렇다2.9% 그렇다13.4% 그렇지 않다51.6% 매우 그렇지 않다28.0%로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적인 생각과 비교하여 국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1,4세대 2,3세대보다 더 강하게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0%	8.0%	5.7%		8.3%		2.9%		1.8%		10.0%	
14.6%		14.3%			50.0%	9.8%	66.7%	16.5%		5.0%	14.3%
52.6%	40.0%	54.3%		33.3%		52.9%		56.1%	50.0%	25.0%	71.4%
27.7%	48.0%	14.3%	100.0	50.0%	50.0%	29.4%	33.3%	22.0%	50.0%	55.0%	14.3%
.4%	4.0%		%			2.0%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 분석은 대북경제지원보다는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한 북조선과의 군사적 대결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정치군사적 정상화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 문제는 잘 드러난다.

		T1 Total	
		(전체)	
AQ30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최우선 과제		사례수	(314)

AQ30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최우선 과제	남북 간 민간 교류	열 N %	24.5%
	경제 협력	열 N %	7.6%
	남북정상회담	열 N %	11.8%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열 N %	27.1%
	남북 간 문화 교류	열 N %	6.7%
	중복응답	열 N %	20.1%
	무응답	열 N %	2.2%

왜냐하면 30.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27.1%4), “남북 간 민간 교류”24.5%, “남북정상회담”11.8%, “경제 협력”7.6%, “남북 간 문화 교류”6.7%로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국적 사람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모두 같은 선택을 하였고 조선 국적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1위로 선택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4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4.1%	(25) 24.0%	(35) 25.7%	(1) 100.0%	(12) 25.0%	(2) 50.0%	(102) 24.5%	(3) 7.3%	(164) 24.4%	(4) 100.0%	(20) 30.0%	(7) 28.6%
7.5%		14.3%	%		50.0%	7.8%		7.3%		5.0%	28.6%
11.1%	20.0%	11.4%		25.0%		10.8%		12.8%		10.0%	
28.5%	12.0%	28.6%		8.3%		20.6%	33.3%	29.3%		35.0%	42.9%
6.7%		11.4%		25.0%		5.9%		7.3%			
19.8%	40.0%	8.6%		8.3%		26.5%	66.7%	17.7%		20.0%	
2.4%	4.0%			8.3%		3.9%		1.2%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은 “31.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의 응답 중 “상호 신뢰성 회복”29.9%,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14.3%,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6%,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지지된다.

		T1 Total
		(전체)
AQ31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남북의 필수 과제	사례수	(314)
AQ31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남북의 필수 과제	상호 신뢰성 회복	29.9%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9.2%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6%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4.3%
	중복응답	17.8%
	무응답	열 N % 2.2%

4) 이는 재러 고려인(45.7%)보다는 낮은 수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제협력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다른 국적보다 분단 극복을 위해서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를 선택하였다. 세대별로는 4세대가 2,4세대에 비하여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를 선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분단의 걸림돌로 미국을 선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30.0%	20.0%	37.1%		25.0%		30.4%	33.3%	33.5%		10.0%	28.6%
8.3%	8.0%	17.1%			50.0%	8.8%		10.4%		10.0%	
10.3%		11.4%		25.0%		6.9%		11.0%		5.0%	14.3%
18.2%	8.0%	14.3%		16.7%		14.7%	66.7%	15.9%	25.0%	20.0%	42.9%
13.4%	24.0%	11.4%	100.0%	25.0%	50.0%	13.7%		10.4%	75.0%	30.0%	14.3%
			%								
17.8%	36.0%	5.7%		8.3%		22.5%		16.5%		25.0%	
2.0%	4.0%	2.9%				2.9%		2.4%			

5. 통일 한반도의 가치와 방향

			T1 Total (전체)
AQ34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	사례수		(314)
AQ34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	정치적 자유	열 N %	20.7%
	민족 주체성	열 N %	20.1%
	경제적 평등	열 N %	12.1%
	보편적 인권	열 N %	26.8%
	환경 친화적인 생활	열 N %	4.8%
	중복응답	열 N %	13.7%
	무응답	열 N %	1.9%

34.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편적 인권”26.8%, “정치적 자유”20.7%, “민족 주체성”20.1%, “경제적 평등”12.1%, “환경 친화적인 생활”4.8%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재러 고려인과는 사뭇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환경친화적 생활(55.8%)이다. 제일 조선인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 주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일본 내에서의 차별과 문화적 고립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또한 재러 고려인과 비교할 때 구별되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답한 것 중 가장 적은 비율이 민족 주체성(4.0%)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인이 재러 조선인보다 더 러시아인으로 동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타민족에 대해 일본만큼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서구의 역사를 문화적 에스닉 공동체가 정치적 네이션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원의 민족을 정치적 차원의 시민으로 변형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할 때⁵⁾, 제일 고려인 보다 제일 조선인의

5) 각주 달기

젊은 보다 더 정치적 차원의 시민으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1.7%	16.0%	17.1%		25.0%		20.6%		22.0%	25.0%	15.0%	14.3%	
19.4%	48.0%	2.9%	100.0%	16.7%		27.5%		15.2%	50.0%	30.0%		
10.7%	4.0%	28.6%		16.7%		9.8%		13.4%	25.0%	5.0%	28.6%	
26.9%	16.0%	34.3%		25.0%	50.0%	17.6%	100.0%	31.1%		20.0%	57.1%	
5.1%		5.7%		8.3%	50.0%	2.9%		5.5%		5.0%		
14.6%	16.0%	5.7%				19.6%		11.6%		20.0%		
1.6%		5.7%		8.3%		2.0%		1.2%		5.0%		

또한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국적별로는 한국, 일본 국적은 “보편적 인권”이 높은 반면에 조선 국적은 “민족 주체성”이 다른 국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국적을 박탈당한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대별로는 3세대를 제외하면 점차적으로 “경제적 평등”은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보자면 3세대에서는 수치가 약간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대가 내려 갈수록 “민족 주체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세대는 “민족 주체성”**30.0%** “보편적 인권”**20.0%**인데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민족 주체성”이라는 점이다.

35.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1.1%**, “문화 선진국의 건설”**16.9%**, 경제 강국의 건설**15.6%**,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10.8%**, 정치-군사 대국의 건설**0.3%**이다. 이러한 현상도 고려인과 비교할 때, 차이점을 드러냄, 즉 재러 고려인도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0.2%)은 1위로 같으나, 제일 조선인은 2위가 “문화 선진국의 건설”**16.9%**인 반면에 고려인은 “경제 강국의 건설”(31.9%)이 2위이다. 또한 “문화 선진국의 건설”에 대한 비율이 재러 고려인은 2.8%이고 제일 조선인은 16.9%로 큰 차이를 보인다.

		T1 Total
		(전체)
AQ35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례수	(314)
AQ35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제 강국의 건설	15.6%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3%
	문화 선진국의 건설	16.9%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41.1%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10.8%
	중복응답	12.4%
	무응답	2.9%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2)	(2)	(102)	(3)	(164)	(4)	(20)	(7)

15.0%	20.0%	17.1%	33.3%		15.7%		15.9%		10.0%	14.3%
	4.0%								5.0%	
17.8%	8.0%	14.3%	8.3%	50.0%	23.5%		12.8%	50.0%	15.0%	14.3%
42.7%	20.0%	45.7%	25.0%		38.2%	100.0%	43.3%	50.0%	30.0%	71.4%
					%					
10.7%	16.0%	8.6%	16.7%	50.0%	7.8%		12.2%		15.0%	
11.9%	28.0%	5.7%			13.7%		13.4%		15.0%	
2.0%	4.0%	8.6%	16.7%		1.0%		2.4%		10.0%	

국적별로는 한국과 일본 국적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가 가장 높다. 이에 반하여 조선 국적인 절반 정도의 비율에 미치고 있다. 두 국적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강국의 건설”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세대별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즉 전체적으로 “경제 강국의 건설”을 선택하는 비율이 세대가 내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2, 3세대에서 높았던 비율, 즉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이 4세대서는 30.0%로 내려갔다. 이는 앞선 항목에서 4세대가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민족 주체성”30.0%를 선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제일 조선인은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대국의 건설보다는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해서 문화 선진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인 문제 보다는 인권, 자유, 주체성이라는 이념 지향성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6. 통일을 위해 남북이 극복해야 할 소통적 가치들

36. 통일을 위해 남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북봉쇄정책23.2%, 외세 의존적 태도21.0%, 대북지원사업17.8%,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14.6%,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10.5%로 나타난다. [재려 고려인은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다(28.2%)] 국적별로는 한국, 일본은 모두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비율이 높으나 조선 국적은 “외세 의존적 태도”가 **48.0%**로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가 대북봉쇄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4세대의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40.0%**로 이는 이 항목을 선택한 전체 비율인 23.2%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며,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T1 Total (전체)
AQ36 통일을 위해 남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사례수	(314)
AQ36 통일을 위해 남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열 N % 10.5%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열 N % 14.6%
	외세 의존적 태도	열 N % 21.0%
	대북 지원 사업	열 N % 17.8%
	대북봉쇄정책	열 N % 23.2%
	중복응답	열 N % 8.0%
	무응답	열 N % 4.8%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9.9%	8.0%	17.1%		8.3%		7.8%	33.3%	12.2%		5.0%	28.6%
14.2%	12.0%	20.0%		16.7%		17.6%		13.4%	25.0%	10.0%	14.3%
19.8%	48.0%	11.4%		16.7%	50.0%	22.5%		21.3%	25.0%	20.0%	
18.6%	4.0%	20.0%	100.0%	16.7%	50.0%	18.6%		18.9%		10.0%	14.3%
			%								
25.3%	4.0%	22.9%		25.0%		16.7%	66.7%	23.8%	50.0%	40.0%	28.6%
7.5%	20.0%	2.9%				10.8%		7.3%		10.0%	
4.7%	4.0%	5.7%		16.7%		5.9%		3.0%		5.0%	14.3%

37. 통일을 위해 북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35.7%, “남북 교류 활성화”28.7%, 경제 개방과 발전 26.8%이다. 그런데 국적별로는 한국과 일본 국적은 전체 응답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조선 국적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높다 높은 비율을 드러낸다. 세대별로는 4세대가 남북 교류 활성화 55.0%로 다른 세대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4세대는 “경제 개방과 발전”의 항목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T1 Total
							(전체)
AQ37 통일을 위해 북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사례수							(314)
AQ37 통일을 위해 북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경제 개방과 발전							열 N % 26.8%
남북 교류 활성화							열 N % 28.7%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열 N % 35.7%
중복응답							열 N % 4.8%
무응답							열 N % 4.1%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6.5%	36.0%	22.9%		8.3%	100.0%	27.5%	33.3%	29.9%			42.9%
					%						
26.9%	48.0%	25.7%	100.0%	33.3%		31.4%		24.4%	50.0%	55.0%	14.3%
			%								
37.5%	12.0%	40.0%		33.3%		30.4%	33.3%	39.0%	50.0%	40.0%	28.6%
5.1%	4.0%	2.9%				7.8%		4.3%			
4.0%		8.6%		25.0%		2.9%	33.3%	2.4%		5.0%	14.3%

따라서 남한이 고쳐야 할 것은 “대북봉쇄정책, 외세 의존적 태도”이며, 북한이 고쳐야 할 것은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통일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1.1%이라는 것과 통일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보편적 인권”26.8%, “정치적 자유”20.7%, “민족 주체성”20.1%로 드러난 것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세 의존적 태도는 “민족 주체성”과 연관된다. 그렇다면 “대북봉쇄정책”은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과 어떤 측면에서 연관되는가? 대북봉쇄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와 연결되고 또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의 차단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8. 남측이 북측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25.8%,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22.9%, 민족적 동포애15.6%, 평등 사회 건설 의지7.6%, 집단주의2.2% 순임.[재러 고려인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다.] 국가별로는 한국, 일본 국적은 전체적인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조선 국적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에 대한 응답에서 다른 국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두 번째로 선택한 항목도 “민족적 동포애”로 다르다. 또한 조선 국적자가 선택한 “민족적 동포애”의 비율도 다른 국적자와 크게는 세 배의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세대별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세대가 모두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4세대는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민족적 동포애에 각각 **25.0%**의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T1 Total
				(전체)
AQ38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점	사례수			(314)
AQ38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점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열 N %		25.8%
	민족적 동포애	열 N %		15.6%
	평등 사회 건설 의지	열 N %		7.6%
	집단주의	열 N %		2.2%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열 N %		22.9%
	중복응답	열 N %		4.1%
	무응답	열 N %		21.7%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25)	(35)	(1)	(12)	(2)	(102)	(3)	(164)	(4)	(20)	(7)
24.5%	48.0%	17.1%	100.0%	16.7%	50.0%	29.4%		24.4%	75.0%	25.0%	
15.8%	24.0%	8.6%		8.3%		9.8%		18.9%		25.0%	28.6%
7.5%		14.3%				3.9%		11.0%		5.0%	14.3%
2.4%		2.9%						3.0%		10.0%	
22.9%	8.0%	34.3%		33.3%	50.0%	20.6%	33.3%	23.8%	25.0%	20.0%	14.3%
3.6%	12.0%	2.9%				9.8%		1.2%		5.0%	
23.3%	8.0%	20.0%		41.7%		26.5%	66.7%	17.7%		10.0%	42.9%

39. 북측이 남측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사회40.4%, 실용적이

고 현실적인 외교18.2%, 세계화13.4%, 자유경쟁8.3%, 개인주의1.6%[재러 고려인이 개인주의와 세계화가 10%이하로 낮게 선택된 반면에 제일 조선인은 세계화를 선택하였다.] 국적별로는 조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가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 일본 국적은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수치가 가장 높다. 세대별로는 모두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4세대가 “세계화”를 선택한 것이 다른 세대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쟁사회로서의 세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4세대는 북측이 남측에 배워야 할 것에서 “자유경쟁”, “개인주의”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표에서 드러나는 세계화의 의미는 문화적 교류로 국한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T1 Total (전체)
AQ39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점	사례수	(314)
AQ39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열 N % 18.2%
	개방적인 사회	열 N % 40.4%
	자유경쟁	열 N % 8.3%
	개인주의	열 N % 1.6%
	세계화	열 N % 13.4%
	중복응답	열 N % 9.9%
	무응답	열 N % 8.3%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16.6%	(25) 36.0%	(35) 17.1%	(1)	(12) 8.3%	(2)	(102) 17.6%	(3) 33.3%	(164) 19.5%	(4)	(20) 25.0%	(7)
42.7%	24.0%	34.3%	100.0%	58.3%	100.0%	36.3%	33.3%	42.1%	75.0%	30.0%	28.6%
7.1%	12.0%	14.3%				10.8%		7.9%			28.6%
1.6%		2.9%				1.0%		1.8%		5.0%	
13.0%	12.0%	17.1%		16.7%		12.7%		12.8%		25.0%	14.3%
9.9%	12.0%	8.6%				11.8%		9.1%	25.0%	10.0%	14.3%
9.1%	4.0%	5.7%		16.7%		9.8%	33.3%	6.7%		5.0%	14.3%

40.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 가운데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하나만 고르세요.에 대한 응답으로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43.3%,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28.0%,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인 가치7.6%,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5.7%, **혈연적인 순수성(민족적 동질성)2.5%** 순이다. 그런데 재러 고려인은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42.6%, 혈연적인 순수성21.2%,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20.2%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인과 비교하면, 제일 조선인은 고려인이 중요시 하는 가치인 유교적 가치나 혈연적 순수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미 제일 조선인은 그들이 민족에 대한 개념 속에 혈연적 의미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다른 국적자에 비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가 가장 높으며, 일본 국적은 다른 국적자보다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의 비율이 크게 높다. 여기서 특징은 조선, 일본 국적은 이제 더 이상 **혈연적인 순수성(민족적 동질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대별로는 큰 유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4세대로 내려 갈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라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4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민족의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혈연 중심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 짚어 말하면 이제 민족은 동질성보다는 어떤 고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그 무엇(이 표의 예;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일 조선인의 4세대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것이다.

		T1 Total (전체)
AQ40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사례수	(314)
AQ40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열 N % 43.3%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	열 N % 5.7%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	열 N % 28.0%
	혈연적인 순수성(민족적 동질성)	열 N % 2.5%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인 가치	열 N % 7.6%
	중복응답	열 N % 7.0%
	무응답	열 N % 5.7%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43.1%	(25) 64.0%	(35) 28.6%	(1) 100.0%	(12) 41.7%	(2)	(102) 51.0%	(3) 33.3%	(164) 40.2%	(4) 50.0%	(20) 40.0%	(7) 28.6%
5.9%	4.0%	5.7%	%	8.3%		7.8%		4.3%		5.0%	14.3%
26.1%	16.0%	51.4%		25.0%	50.0%	19.6%	66.7%	32.3%	25.0%	40.0%	42.9%
3.2%				8.3%	50.0%	1.0%		1.8%		5.0%	
8.3%		8.6%		8.3%	50.0%	6.9%		8.5%		5.0%	
7.5%	8.0%	2.9%				10.8%		6.1%		5.0%	
5.9%	8.0%	2.9%		16.7%		2.9%		6.7%	25.0%		14.3%

7. 나가며: 통일 전망과 통일 한반도의 민족공통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42.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밝다30.6%라는 응답이 어둡다 61.5%라는 응답에 비해 적다. 국적별로도 한국, 일본 국적은 비관적인데 비하여 조선 국적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런데 세대별 흐름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대가 내려 갈수록 통일의 전망이 비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T1 Total (전체)
AQ42 한반도 통일의 전망	사례수	(314)
AQ42 한반도 통일의 전망	밝다	열 N % 30.6%
	어둡다	열 N % 61.5%
	중복응답	열 N % 1.9%
	무응답	열 N % 6.1%

nationality 국적				generation 재외동포세대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세대	1.5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	무응답	
(253) 30.0%	(25) 48.0%	(35) 20.0%	(1) 100.0%	(12) 33.3%	(2)	(102) 29.4%	(3) 33.3%	(164) 32.3%	(4) 50.0%	(20) 30.0%	(7)	
61.7%	40.0%	77.1%	%	58.3%	100.0%	58.8%	66.7%	61.6%	50.0%	65.0%	85.7%	
1.6%	8.0%					3.9%		1.2%				
6.7%	4.0%	2.9%		8.3%		7.8%		4.9%		5.0%	14.3%	

먼저 제일 조선인은 역사적으로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고 인식하고,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남북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통일의 장애 요인과 분단 지속의 원인에 대하여,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에서 찾고 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책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책임이 강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조선의 책임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재러 고려인과는 구별점이 두드러진다. 재러 고려인의 경우는 조선과 미국 책임을 각각, 54.9%, 26.1%로 드러난다. 즉 재러 고려인은 통일의 장애 요인을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요인보다는 조선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제일 조선인은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유사한 비율로 조선이라는 내부에 통일의 장애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급하였듯이 통일을 위하여 북한이 남한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응답에 세 4세대가 “세계화”를 선택한 것의 의미를 일상적인 이해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4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세계화”를 선택한 것이 높게 나타난다. 문제는 **여기서 의미하는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쟁사회로서의 세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4세대는 북측이 남측에 배워야 할 것에서 “자유경쟁”, “개인주의”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족 공통의 가치의 추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려인과 비교하면, 제일 조선인은 고려인이 중요시 하는 가치인 유교적 가치나 혈연적 순수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미 제일 조선인은 그들이 민족에 대한 개념 속에 혈연적 의미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대별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세대가 모두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4세대는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민족적 동포애에 각각 **25.0%의**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이 통일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1.1%이라는 것과 통일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보편적 인권”26.8%, “정치적 자유”20.7%, “민족 주체성”20.1%로 드러난 것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가?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세 의존적 태도는 “민족 주체성”과 연관된다. 그렇다면 “대북봉쇄정책”은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과 어떤 측면에서 연관되는가? 대북봉쇄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와 연결되고

또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의 차단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4세대가 미국을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하면서도 분단 **지속의 원인**은 남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4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므로 이후의 통일 교육의 방향점을 제시한다. 즉 무조건적인 친미, 혹은 반복적 내용으로는 더 이상 이들 세대에게 통일 교육으로는 적절하게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재일 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은 통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남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역사 의식은 자신들이 성장해온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특수성과 동시에 역사적 공통성이 함께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추상적 보편성의 억압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적별로도 어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조선, 한국, 일본 순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세대별로도 주목할 점은 모든 세대보다 4세대가 가장 크게 남북 분단 문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남북 분단 문제를 세대가 지날 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재일 조선인은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대국의 건설보다는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해서 문화 선진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인 문제 보다는 인권, 자유, 주체성이라는 이념 지향성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조선, 일본 국적은 이제 더 이상 **혈연적인 순수성(민족적 동질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대별로는 큰 유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4세대로 내려 갈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라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4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민족의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혈연 중심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 짚어 말하면 이제 민족은 동질성보다는 어떤 고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그 무엇(이 표의 예;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일 조선인은 세대가 내려 갈수록 통일의 전망이 비관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앞서 언급 하였던 통일의 가치방향과 가치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공유된 것을 공통의 미래, 즉 분단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과 연결될 수 있을 때, 다양한 정체성의 확보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은 단일한 정체성일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정체성(identity)은 부단한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identify). 우리는 각 나라의 동포들의 지역적, 국가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미래의 문제로 전승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6)의 분단·통일 의식

김종곤

1. 들어가며

- 설문조사방법과 대상
- 무응답과 중복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분석의 목적
- 글의 구성

2. 북한과 남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탈북동기’로 ‘북한 체제가 싫었기 때문’(41.3%)이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으며, ‘생존(혹은 굶주림) 때문’(27.5%)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다.(표1) 이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7)는 다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탈북의 가장 주요동기로 굶주림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면 주요한 탈북동기는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오인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이후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야기한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8)된다고 한다. 북한 탈출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등의 고초와 심리적 상처, 제3국에서의 은닉생활 중 강제복송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존의 위기라는 탈북동기는 제3국 체류와 남한 입국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충분히 전치될 수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를 알기 위해 노력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남한이 ‘북한과 달리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때문’(33.9%)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표2) 이 또한 전적으로 남한 입국 후 형성된 인식이라기보다는 제3국 체류기간 동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미디어를 통해 남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접한다고 한다.9) 이때 그들은 북에서 받은 교육10)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북한체제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표1. 탈북동기

표2. 남한사회를 알기 위해 노력한 계기

		사례수	(109)
사례수	(109)	남한 사회에서 생존과 적응이라는 절박한	32.1%

6) 북한이탈주민 개념 -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 칭한다.
 7) 특히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38권, 2000, 140쪽을 참고할 것.
 8)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석사학위 논문, 2007, p.81.
 9)
 10) ‘북한의 학교교육을 신뢰하는가?’라는 물음에 61.5%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과제 때문이다	
생존(혹은 굶주림) 때문	27.5%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수천년 동안 언어와 역사가 같은 단일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25.7%
북한 체제가 너무 싫었기 때문	41.3%	북한과 달리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33.9%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	9.2%	자녀교육과 나의 미래 때문이다	7.3%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권유 때문	14.7%	노력한 적 없다	0%
기타	6.4%		

하지만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이면에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 진 것은 경쟁사회에서의 생존과 적응이라는 문제이다. 표2에서 보듯이 ‘남한 사회를 알기 위해 노력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32.1%)이 ‘남한 사회에서 생존과 적응이라는 절박한 과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남한정부가 정착초기에 지급하 는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스스로 의 힘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미래적 삶이 결정된다 는 인식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¹¹⁾과는 다른 남한에서 의 생활은 ‘코리아안 드림’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배제에 대한 공포, 또 다른 생존의 위기의식을 가지 게 한다.

남한입국 시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물음에 상당수가 긍정(매우만족+만족)(78%)하는 것으로 들어났으나(표3) 59.6%의 응답자가 현실적인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 무시, 편견 등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¹²⁾하였다고 대답했다.(표4, 표5) 남한 입국 후 제공되는 거주지와 정착금과 같은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민족 내부의 적대적 이고 가난한 타자”¹³⁾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주변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남한의 국민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문화-정서적으로 다수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 통합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표3.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만족하는가?

사례수	(109)
매우 만족	21.1%
만족	56.9%
불만족	17.4%
매우 불만족	3.7%
무응답	.9%

표4. 남한 동포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례수	(109)
있다	59.6%
없다	39.4%
무응답	.9%

표5. 남한 동포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

사례수	(65)
무관심	9.2%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24.6%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35.4%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30.8%

11) 중국 등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고 한다.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본 드라마는 적어도 한국의 중상류층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 자신도 그것과 동일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표시)

12)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후 국정원 조사와 8주 간의 하나원 교육과정을 거쳐 거주지를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어적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장이나 지역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13)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박사학위논문, 2011, p.142.

그렇기에 ‘남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표6)라는 물음에 89.9%가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물음(표7)에 64.2%가 긍정(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그대로 긍정적)하였으며 이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로 부터 배제된다고 답한 것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이러한 모순적 대답은 생존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비록 험난한 경쟁과 주변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삶의 피로감이 엄청날지라도 탈남¹⁴⁾하지 않는 이상 남한은 그들이 어쨌든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 새로운 국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법적 지위를 넘어 국가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통합될 수 있는 ‘온전한 국민’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차이점을 제거해야 한다. 남한에 대한 문화-정서적 부정성은 남한주민과의 차이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감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표7의 물음에서 ‘남한사람들’은 남한이라는 국가로 인식되는 것이다.

표7의 물음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가 64.2%가 적극적으로 ‘국민되기’를 표현한다면 소극적인 응답자도 찾을 수 있다. 이 물음에서 21.2%의 응답자는 ‘별 관심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남한에 대한 문화-정서적 부정성과 남한 국민되기 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는 물음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물음에서 북한(6.4%)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며 남한에 더 호감을 느낀다는 사람(59.6%)이 많았다. 하지만 ‘둘 다 똑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33.9%였다.(표8) 남한도 북한에 대해 똑 같은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달리 말해 이 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표6. 남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표7. 남한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인상)가 이전에 비해 좋아졌는가?** **표8.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사례수	(109)	사례수	(전체) (109)	사례수	(109)
매우 그렇다	26.6%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33.0%	남한	59.6%
그렇다	63.3%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부정적으로	7.3%	북한	6.4%
아니다	9.2%	그대로 긍정적이다.	31.2%	둘 다 똑 같다	33.9%
매우 아니다	.9%	그대로 부정적이다.	7.3%		
		별 관심이 없다.	21.1%		

탈북동기에서부터 몇몇의 물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과 남한에 대한 정서-문화적 반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떠나온 공간성과 정착한 공간성 그리고 그 중간의 공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성들은 서로 교착되어 있다. 따라서 한 공간이 가진 부정성은 다른 한 공간의 긍정성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에 대해 상호 교차하면서도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분단-통일 의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

14) 탈남에 대한 논의 (오원환, 같은 논문 참조.)

고자 한다.

3. 통일에 대한 중요성 인식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표9)라는 물음에 ‘그렇다’(94.5%)가 ‘아니다’(5.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자신들의 삶의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래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이 ①우리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며, ②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할 것이며, ③동북아시아의 평화 공존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면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조선족, 고려인, 재일조선인 민족 공통성 설문조사 결과와 간략하게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⁵⁾

표9.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례수	(109)
그렇다	94.5%
아니다	5.5%

①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표10)라는 물음에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수인 64.2%가 ‘이산의 고통’을 선택하였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는가?’(표11)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92.7%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엇보다 분단이 이산의 고통과 남북의 적대성을 낳았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까지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있어 통일은 같은 민족 간의 적대성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공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10.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11.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사례수	(109)	사례수	(109)
이산의 고통	64.2%	그렇다	92.7%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	4.6%	아니다	7.3%
민주주의의 왜곡과 발전저해	8.3%		
경제발전의 저해	6.4%		
남북의 적대와 긴장	16.5%		

그런데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니다. 표10의 물음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민족공통성 설문조사에서는 없었던 항목이기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표11의 물음에서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조선족,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 응답자 중 각각 82.2%, 81.0%, 83.1%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우

15) 향후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재일조선인,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의 비교분석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¹⁶⁾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식 요인에서는 타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②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표12)로 ‘남북 분단’을 선택한 사람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이 35.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중요 과제’(표13)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선택한 사람이 4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많은 수의 응답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남북 분단이라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통일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1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례수	(109)
남북 분단	36.7%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4.6%	
경제적인 곤란	8.3%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35.8%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14.7%	

표13.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사례수	(109)
분단 극복과 통일	45.0%	
자주적 외교	17.4%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12.8%	
북-일, 북-미 수교	6.4%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17.4%	

표12의 물음 결과를 타 지역과 비교하면 ‘남북 분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¹⁷⁾ 표13의 물음 결과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응답비율은 중국조선족과 러시아고려인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재일조선인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은 ‘자주적 외교’,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응답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북-일, 북-미 수교’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¹⁸⁾ 이는 전통문화, 자주성과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의 인식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⁹⁾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기 전 상당한 시간을 북한에서 보냈으며 그곳의 교육·문화적 환경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은 당연히 내

16) 북한이탈주민과 약10%정도의 응답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아니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 비교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7)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중국조선족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
사례수	(297)	(326)	(314)
남북 분단	40.7%	69.6%	51.6%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9.1%	6.4%	7.6%
경제적인 곤란	12.5%	1.2%	7.6%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11.4%	5.2%	11.8%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26.3%	12.6%	8.6%

18)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중국조선족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
사례수	(297)	(326)	(314)
분단 극복과 통일	51.5%	63.5%	43.3%
자주적 외교	14.1%	7.7%	8.9%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9.1%	2.5%	2.5%
북-일, 북-미 수교	8.1%	12.9%	20.7%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17.2%	7.7%	10.2%

19) 전미영, 「북한사회의 전통문화 인식」, 『한국민족문화』 제27호, 2006, pp.379-406 참조.

면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남한으로 온 이후에도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남한도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에 대해 그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는 더더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체제에 대해 긍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표14)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95.4%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표15)라는 물음에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39.4%)이라는 응답과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37.6%)이라는 응답이 각각 1, 2순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다수는 한반도 내에서의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남과 북의 통일이 그것을 해소할 것이라 믿고 있다.

표14.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15.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례수	(109)	사례수	(109)
매우 그렇다.	48.6%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2.8%
그렇다.	46.8%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39.4%
그렇지 않다.	4.6%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8.3%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11.9%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37.6%

남북통일의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역 모두 응답자의 90% 내외가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긍정하였다.²⁰⁾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묻는 물음에서는 러시아고려인과 재일조선인에 비해 한반도의 분단 상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²¹⁾ 하지만 중국조선족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중국조선족은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60.3%)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18.2%),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4.4%)이라는 응답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률에 비해 눈에 띄도록 낮았다.²²⁾

20)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에 대해 중국조선족은 92.5%, 러시아고려인은 91.4%, 재일조선인은 89.2%가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하였다.

21) ‘한반도의 분단 상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북아시아지역의 위협이 된다고 선택한 응답비율이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 보다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은 이유는 이들이 더 당사사적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러시아고려인과 재일조선인과 다르게 비록 2개의 국가로 갈려져 있지만 한반도라는 민족의 땅에 거주하고 있으며, 통일과 분단의 문제는 이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22)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사례수	중국조선족 (297)	러시아고려인 (326)	재일조선인 (314)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6.4%	4.3%	13.7%

이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관계, 북한에 대한 중국조선족의 호감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²³⁾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이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 문항 선택율이 낮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북의 분단 문제를 많이 선택하였다는 것은 남한체제에 대한 긍정성과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나온 인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4. 통일의 장애와 분단 지속에 대한 인식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인 47.7%가 ‘중국’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33.9%), ‘미국’(12.8%), ‘남한’(2.8%) 순으로 대답하였다. 특이한 점은 타 지역의 코리언디아스포라는 북한 혹은 미국이 가장 많거나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중국을 선택한 응답비율은 아주 낮았는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이와 다르게 중국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²⁴⁾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⁵⁾ 2000년대 이후의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험 등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크게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남한입국 후 하나원에서의 교육²⁶⁾과 남한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인식적으로 긍정하면서 외교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6.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남한	북한	둘 다 똑 같다
사례수	(109)	(65)	(7)	(37)
남한	2.8%	4.6%		
북한	33.9%	44.6%	28.6%	16.2%
미국	12.8%	10.8%	28.6%	13.5%
일본				

표17.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18.2%	34.4%	23.2%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60.3%	17.8%	15.3%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10.8%	3.7%	6.7%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4.4%	32.8%	21.0%

23)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러시아고려인, 재일조선인은 북한에 비해 남한에 확연하게 더 호감을 느끼는 반면에 중국조선족은 둘의 호감도 차이는 별로 없으면서 ‘둘 다 똑같다’라는 응답비율이 60%를 넘었다.

24) 중국 조선족은 미국(66.3%), 북한(18.2%)순으로, 러시아고려인은 북한(54.9%), 미국(26.1%)순으로, 재일조선인은 북한(31.8%), 미국(28.3%)순으로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선택했다.

25)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시켜왔다. 2012년 2월 21일 뉴스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26) 장선하,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장선하는 이 논문에서 하나원의 교육을 “국민만들기”라 지칭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순화’와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체제 내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강요받는다.

중국	47.7%	36.9%	42.9%	67.6%
러시아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표18)라는 물음에 북한의 폐쇄성(36.7%), 외세 열강의 방해(31.2%), 남과 북의 적대(28.4%), 미국과 남한의 대북봉쇄정책(3.7%)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중국조선족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조선족은 남과 북의 적대(39.7%) 다음으로 미국과 남한의 대북봉쇄정책(27.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비율과 비교하면 약9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조선족들에 비해 훨씬 더 남한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표18.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19. (교차비교)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들이 되는 나라는?

	(전체)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사례수	(109)	(3)	(37)	(14)	(52)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28.4%	66.7%	37.8%	35.7%	19.2%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31.2%		16.2%	57.1%	34.6%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문	3.7%		5.4%	7.1%	1.9%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36.7%	33.3%	40.5%		44.2%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의 장애와 분단 지속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서의 학습·교육된 의식과 경험적으로 형성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통일과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

‘남북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표20)라는 물음에 ‘남북 간 민간교류’(32.1%), ‘경제 협력’(32.1%), ‘남북정상회담’(20.2%) 순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표21)를 묻는 물음에서는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32.1%), ‘상호 신뢰성 회복’(31.2%), ‘정기적인 남북 대화 정착’(18.3%) 순으로 대답하였다. 두 물음에서 군사적 측면보다는 민간/경제 협력과 정치적 노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며 아울러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단 극복을 위한 선과제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표20.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표21.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체)		(전체)
사례수	(109)	사례수	(109)
남북 간 민간 교류	32.1%	상호 신뢰성 회복	31.2%
경제 협력	32.1%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32.1%
남북정상회담	20.2%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18.3%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6.4%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7.3%
남북 간 문화 교류	8.3%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0.1%

다음 물음에서도 이들은 일관된 생각을 보였다.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표22)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26.6%), ‘외세 의존적 태도’(22.9%), ‘대북 퍼주기 사업’(22%),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13.8%), ‘대북봉쇄정책’(12.8%) 순으로 선택하였다.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표23)으로 ‘경제 개방과 발전’(49.5%), ‘남북 교류 활성화’(38.5%), ‘국제규범질서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11.9%)순으로 선택하였다. 표22에서 시장체제를 선택한 응답비율이 낮으며 표23에서 북한 경제 개방과 발전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은 남한의 시장체제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표22에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에 응답은 가장 많으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선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전자는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투영하여 감정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남한의 정서-문화에 대한 부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 후자는 남한체제에 대한 인정이다. 이 대답이 전자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체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유보하고 인간관계의 윤리적 판단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표22.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표23.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체)		(전체)
사례수	(109)	사례수	(109)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26.6%	경제 개방과 발전	49.5%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13.8%	남북 교류 활성화	38.5%
외세 의존적 태도	22.9%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11.9%
대북 퍼주기 사업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의 지원)	22.0%		
대북봉쇄정책 (북한과 교류를 일절 끊는 것)	12.8%		

두 번째는 표22에서 ‘대북 퍼주기 사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표24)라고 물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물음에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49.5%이며 부정(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50.5%로 유효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 특이한 점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표25)라는 물었을 때이다. 이 물음에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66.9%로 부정(그렇지 않다)적으로 대답한 사람 32.1%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은 대북봉쇄정책과 대북경제지원 간에 일관되지 못한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한체제에 대한 긍정성과 고향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장소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²⁷⁾ 북한은 그들에게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를 만든 슬픔이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이며, 때로는 함께 오지 못한 가족이 남아있는 곳이다.

표24. 현재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사례수	(109)	22.9% (25)	44.0% (48)	32.1% (35)	0.9% (1)
매우 그렇다	18.3%	28.0%	4.2%	28.6%	100.0%
그렇다	31.2%	4.0%	45.8%	31.4%	
그렇지 않다	41.3%	52.0%	43.8%	31.4%	
매우 그렇지 않다	9.2%	16.0%	6.3%	8.6%	

표25. (교차비교)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6. 통일한반도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적 가치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표26)라는 물음에 ‘정치적 자유’(36.7%), ‘경제적 평등’(30.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표27)라는 물음에 ‘경제 강국의 건설’(52.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들의 대답을 미루어 볼 때 통일한반도는 그들이 경험한 두 공간의 긍정성을 결합하는 형태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표28, 표29에서 확인된다.

표26.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전체)		(전체)
사례수	(109)	사례수	(109)
생태 친화적인 삶	5.5%	경제 강국의 건설	52.3%
정치적 자유	36.7%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14.7%
민족 주체성	12.8%	문화 선진국의 건설	10.1%
경제적 평등	30.3%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19.3%
보편적 인권	13.8%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2.8%

표27.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표28)라는 물음에 ‘민족적 동포애’(23.9%), ‘집단주의’(23.9%)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22.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표29)라는 물음에는 ‘개방적인 사회’(39.4%)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경쟁’(27.5%)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28.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표29.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체)		(전체)
사례수	(109)	사례수	(109)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14.7%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13.8%
민족적 동포애	23.9%	개방적인 사회	39.4%
평등 사회 건설 의지	9.2%	자유경쟁	27.5%
집단주의	23.9%	개인주의	2.8%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세계화	14.7%
무응답	5.5%	중복응답	1.8%

27) 오인혜, 같은 논문, P.69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미래의 통일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그들이 경험한 양국가의 부정성이 제거되고 긍정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찾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통일한반도의 미래적 가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긍정성		남한의 긍정성
경제적 평등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 :	+	정치적 자유 경제 강국의 건설 개방적인 사회 자유경쟁 :
남한의 부정성		북한의 부정성

7. 나가며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분단 의식 요약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분단 의식은 남과 북에 대한 양가성에 근거

- ① 남한체제에 대한 긍정성 ->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성
- ② 남한 정서-문화에 대한 긍정성 -> 북한 정서-문화에 대한 긍정성

	북한		남한
문화-정서	긍정	←	부정
국가체제	부정	←	긍정

* 정책적 의미

- 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 -> 오히려 반대효과
- ② 통일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문화-정서적, 체제적 충돌의 완충역할

* 설문조사의 한계와 이 글의 한계, 남은 과제

34) 반면 재중 조선족에게 실시한 동일한 질문에서 조선어 70.4%, 중국어 4.0%, 섞어서 쓴다 25.6%라고 답변.
재중 조선족에게 조선어가 일상어임.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공통성

박민철(사상이념팀)

I. 들어가며: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와 재러 고려인 설문조사

이 논문은 2010년 9월에 기획되어 실시되고 있는 ‘민족공통성연구프로젝트’중 ‘재러 고려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러시아의 연해주(296명)와 사할린(30명)에 거주하는 한인 총 326명을 대상으로¹⁾ 201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접대면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011년 4월 예비조사, 5월 설문문항검토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시기에는 현지 조사자와의 협의 및 현지 사정에 맞게 문항 내용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우수리스크²⁾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의 김발레라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맡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인 재러 고려인은 연해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출생자는 27명에 불과하며, 사할린 출생자 40명을 제외하면 다수인 257명이 중앙아시아 출생자이다. 현재 연해주 고려인들은 이주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 설문조사의 대략적인 결과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의 답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1) 설문조사대상의 기본적 구성은 ‘20세 이하’ : 21명, ‘20-40세’ : 137명, ‘41-60세’ : 115명, ‘60세 이상’ : 53명, ‘남자’ : 151명, ‘여자’ : 173명, ‘농촌’ : 20%, ‘도시’ : 80%, ‘러시아 국적’ : 296명, ‘그 외 북한 국적’ : 4명, ‘한국 국적’ : 1명, ‘중앙아시아 국적’ : 20명, 무응답 20명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표는 다음과 같다.

	전체	출생지역					연령					
		연해주	사할린	중앙 아시아	기타	무응 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 례 수	326	27	40	257	1	1	19	55	77	53	52	70
연 해 주	90.8 %	96.3%	37.5%	98.4 %	100.0 %	100.0 %	100.0 %	83.6 %	92.2 %	98.1 %	88.5 %	88.6 %
사 할 린	9.2%	3.7%	62.5%	1.6%				16.4 %	7.8%	1.9%	11.5 %	11.4 %

2) 우수리스크(Ussuriisk)의 특성: “블라디보스톡 북부에 있는 우수리스크는 농산물 가공업이 주류인 도시로, 중국의 수분화와 연결돼 중국으로부터의 물량과 상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즉 중국과의 무역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경도시로, 이곳의 중구시장이 특히 유명하다.”(이송호 외, 15쪽) “우수리스크시에는 러시아 연해주지역 조선족 회관과 한국어교육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의 극동 대학에는 한국학대학이 개설돼 있고, 우수리스크시의 우수리스트사범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개설돼 있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는 한국을 알고 배우려는 열의가 있고 한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송호 외, 20쪽)

앞 서 밝혔듯이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수행한 이번 재러 고려인 설문조사는 ‘민족공통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민족공통성을 연구하는 기본적 인식틀은 기존의 민족정체성 연구에 깔린 ‘동질성 대 이질성’의 패러다임이 아닌, ‘공통성 대 차이’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남과 북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차이들을 이질성의 틀로서 거부하지 않고 한민족의 공통성으로 포괄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혈연, 언어, 가치, 소속감, 민족관, 생활양식, 풍속등의 요소를 통해 한반도와의 동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겪었던 문화적 변용을 한민족이 갖는 공통적 요소와 자산으로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이제까지의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혈연, 언어, 생활양식과 풍속등을 통해 한민족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식, 또는 동일한 이분법적 틀에서 이질성을 강조하고 디아스포라의 해체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⁴⁾ 하지만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기획한 ‘민족공통성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난 2011년도의 ‘재중 조선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족’ vs. ‘탈민족’의 패러다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해외 한인의 ‘이중정체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들이 갖는 ‘이중정체성’은 오랜 기간 나름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이뤄갔다는 사실과 함께, 여전히 해외 한인들은 다양한 방식에서 ‘민족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재러 고려인’의 민족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설문조사에는 앞 선 재중 조선족 설문조사와 동일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재중 조선족의 설문조사에 있어서와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했다. 예컨대, ‘인지적 정체성’, ‘정서-문화적 정체성’, ‘일상적 삶의 정체성’등이 그것이다. 물론 재러 고려인은 재중 조선족과는 다른 오랜 경험과 역사를 지니고 살아왔다. 이주-강제이주-재이주라는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역사는 이번 설문조사 분석의 중요한 틀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의 층차를 가장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거주지역’, ‘출생지역’, ‘세대구분’등이 중요한 구별요소로 쓰였다.

=> 재러 고려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 현재 러시아 거주 한인의 수⁵⁾ 및,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역사⁶⁾ 등등

3) 통일인문학연구단이 마련한 민족공통성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60쪽 이하를 참고하라.

4) 이와 같은 기존 해외 한인들을 연구하는 대립적인 분석틀과 이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62쪽 이하를 참고하라.

5) 연해주 한인의 수: 2001년 현재 독립국가연합 521,694명, 러시아 156,650명, 러시아 극동 87,200명. “현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구소련 내 한인은 약 45만명으로 인구수에서 120여개 민족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에는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구소련령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에 약 22만명, 카자흐스탄에 약 10만명, 키르기스스탄에 2만명 등이 분포돼 있다...사할린에는 대부분 1939-1945년 일본이 징용해 당시 일본 지배하에 있던 남부사할린에 강제 이주시킨 15만 한인 가운데 종전과 함께 송환되지 못하고 잔류한 4만 3천명의 한인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이승호 외, 54쪽)

6) 연해주 이주의 단계 구분: 제1기는 1863-1884년 국교수립까지, 조선에서 한인들이 이주한 시기로서 당시 연해주는 거의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연해주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러시아도 한인의 이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 제 2기는 1884년-1893년, 이 시기의 이민은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농민 이외에 상당수의 상인과 노동자가 포함되었다.

=> 재러 고려인 연구가 갖는 중요성 언급: 특히 통일인문학과와의 연관선상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론, 연해주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⁸⁾ 등을 언급.

=> 연해주 지역이 갖는 실험적인 의미: (재이주해 온 재러교포+중국 동북3성에서 장사와 노동을 위해 들어온 재중교포, 건설과 농업부문 노동자로 들어온 북한동포+그리고 투자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온 한국인): 연해주가 갖는 의미는 첫째, 오랫동안 상이한 체제와 국가에 분산되

이 시기에는 한인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하게 됨. 제 3기는 1893년-1910년 한일합방까지,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같은 격변이 몰아치면서 연해주로의 망명이민이 크게 늘어났고 상당수의 한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제4기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시기, 이 시기에는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등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한인들과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한인들이 대거 이주. 이것은 이송호 선생의 구분, 연해주 이주의 시기 구분은 거의 대동소이, 중요한 것은 이주의 성격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 이런 면에서 이송호 선생의 구분이 가장 단순 명료해보임. “한인은 1860년부터 이주를 시작한 이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기까지 약 70년간 수십만 명이 연해주로 이주했다. 이주자의 성격은 주로 농업이민과 정치적 이민으로 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농업이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송호 외, 30쪽)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이후의 러시아 이주는 경제적 동기 외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이주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었다.”(이송호 외, 31쪽)

7) 김계르만 선생은 3단계로 구분: 제 1단계(1863-1884): “한인 이주에 대해 언급된 최초의 공식문서는 1863년 12월 30일자 레자노프 육군 중위의 보고이다.”(김계르만, 154쪽) 그리하여 1864년 1월 65명이 최초의 한인 거주지역 ‘지신허(地新墟, Tizinkhe) 마을이 형성된 뒤, 러시아 거주 한인 인구는 1867년 999명, 1869년 6543명, 1882년 8385명, 1902년 66320명으로 증가하였다. 제 2단계(1884-1905년): 우수리 변경에 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벵강 지역 개발을 위해 한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시기,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이주 한인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토지 분배 및 모든 종류의 조세의 의무도 주어짐, 또한 이주 한인들의 조속한 러시아화 대책이 마련되기도 함. 제 3단계(1905-1917): 러일 전쟁(1904-1905)년과 일본의 조선 통치로 인해 만주와 극동으로의 한인 이주가 증가하였다. “고려인 역사학자 박 보리스 교수에 의하면, 1860년대 시작된 연해주 지역을 향한 한인들의 움직임은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주’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국경을 넘은 자연침투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박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이주’, 즉 한인들이 대규모로 원래의 조국을 버리고 또 다른 조국을 찾아 러시아로 흘러 들어온 현상은 일본의 통치시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으며 한일합방 이후 그 규모는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김계르만, 166쪽) 결과적으로 1906년 34399명에서 1910년 50965명, 1911년 62529명, 1912년 64309명, 1915년 72600명, 1917년 84678명으로 증가. (김계르만, 167쪽)

8) 연해주의 정치경제학적 가치: 연해주가 갖는 정치경제학적 가치는 자명하다. 연해주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삼각협력, 그리고 동북아 거점 역할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연해주의 지정학적 가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집단들 사이에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들을 구분해 보면 북방계 토착민족, 한민족과 중국인 집단, 그리고 유럽에서 유입된 슬라브계. 이들 중에서 북방계 토착민족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민족. 그 결과 연해주는 러시아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아시아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타민족에 대한 강한 축출력이 아니라, 오히려 타민족을 포용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강한 흡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과거 상이한 사회체제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점. 우리에게 연해주는 한국, 일본,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러시아, 북한, 중국의 사회주의 진영간의 긴밀한 교류가 형성되고 있는 개방된 시장이라는 공간을 제공. “현재 연해주에서는 중국 동북3성의 자원과 노동력, 연해주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 남한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협력도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이윤기 외, 24-25쪽) “다시 말해 연해주는 러시아에게는 아태국가들과의 자본과 기술협력이 가능한 곳이고, 중국에게는 동북 3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출해구가 되는 곳이다. 일본에게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대륙시장 진출이 가능한 곳이고, 북한에게는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이 경제협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이윤기 외, 233-234쪽)

어 거주하면서도 이질화된 다양한 한민족 구성원이 다시 만나 민족적인 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장소. 둘째, 연해주 거주 한인들은 한민족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동화과정을 경험하였기에, 민족적 공통성과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들. 셋째, 연해주 거주 한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아가 남북한의 공통성과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미래 통일한반도의 실질적 모델로서 활용가능. “연해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민족 사회의 교류와 협력 증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윤기 외, 186쪽)

II. 재러 고려인⁹⁾이 갖는 ‘인지적 정체성’의 틈새: ‘조국’과 ‘모국’의 사이에서

1858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베이징조약’ 따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연해주는 1938년 10월 러시아 연방의 행정단위로 편입된 이후 구소련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연해주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1860년대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이주로 러시아의 연해주는 대표적인 한인거주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연해주 한인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적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구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과거 잊혀졌던 연해주 한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 재러 고려인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한계.¹⁰⁾¹¹⁾

9) ‘고려인’의 유래: 1990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재소통포연합회에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름이 분단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려인’이라는 명칭에 합의를 보고 최초의 전 소련 한인의 통합조직 ‘전소고려인협회’를 창설한데서 유래(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오래 전부터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신들을 일컫는 ‘고려사람’이라는 명칭을 한국인들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가 ‘고려인’이라는 주장(김필영, 『소비에트 고려사람과 고려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10) ① **재러 고려인 연구의 동향:**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연구물은 학위논문 40여편, 학술논문 120여편, 단행본 130여편 등이다. 이러한 연구물은 크게 문화연구, 역사연구, 정치경제 연구로 나뉘는데, 우선 문화연구는 “소련의 동화정책으로 인해 한인들의 언어와 풍속이 다소 변용되었지만, 한인들이 민속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어로 문학예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면면히 민족정체성을 유재해왔다는 사실을 밝히”(정진아, 397쪽)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연구는 “외세의 지배와 항일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연해주와 사할린 한인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 것”(정진아, 399쪽)이며, 정치경제연구는 재러 고려인의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무엇보다 연해주/사할린 지역 한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정진아, 400) 있다.

② **연해주/사할린의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연구경향:** 재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경향은 첫째, 소수민족의 민족성과 문화갈등에 대한 연구. 여기서는 언어적 공감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정진아, 401쪽) 둘째, “연해주/사할린에 대한 개발수요에 주목하고 한국과 연해주, 사할린을 연결시켜줄 가교로서 한인들을 바라보는 연구”(정진아, 402쪽) 셋째, 앞 선 두 연구를 거주국 중심의 연구, 모국 중심의 연구,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간과한 연구로 비판하고 디아스포라의 구성적 정체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정진아, 403쪽)

11) 정진아 선생은 이에 대해 한인 연구가 갖는 오류를 다음처럼 지적한다. 1. “다수의 한인연구가 한인이 아닌 철저히 한국 중심적이라는 점”(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408쪽, ex. 1.2 세대의 강렬한 모국지향성을 바탕으로 지원정책과 네트워크 형성문제를 파고드는 한계) 2. “출신지역

=> 특히나 기존의 민족정체성 연구가 갖는 한계: 핏줄과 언어에 대한 동질감 확인, 귀속감여부 확인, 조국과 민족관에 대한 조사 등등.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수행한 ‘민족공통성프로젝트’ 중 하나인 재중 조선족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들은 이미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가 갖는 특수한 ‘인지적 정체성’을 확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국가라는 상징자본이 부여한 ‘인지적 정체성’과 그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컨대 ‘조국’과 ‘모국’을 동시에 묻는 질문방식과 더불어 스스로의 민족 호칭을 묻는 질문을 통해, 해외 한인들이 스스로 생산해내는 정체성에서 어떤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 한인들이 갖는 고유한 ‘이중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중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중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민족공통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추리는 작업과 연결된다. ‘민족공통성’을 찾는 작업은 우리 민족이 갖는 고정불변한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닌,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생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찾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혈통, 문화, 언어, 종교 등과 같은 고정불변한 ‘선체험적-혈연문화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 아닌 ‘거주국에서 경험한 배제와 고난, 적응이나 저항의 경험¹²⁾을 통해 그들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후체험적-경험구성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앞서 얘기한 해외 한인의 인지적 정체성과 그 간극, 다시 말해 이중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거주국에서 경험한 배제와 고난, 적응과 저항의 경험’이라는 특징은 재러 고려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표1. “내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러시아	86.8%	86.1%	93.3%	88.9%	82.5%	87.5%	84.2%	96.4%	90.9%	77.4%	82.7%	85.7%
조선(북조선)												
한국(남한)	2.5%	2.4%	3.3%		5.0%	1.9%			1.3%	9.4%		2.9%
한반도	.9%	1.0%				1.2%			2.6%			1.4%

별 정체성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409쪽, ex. 다양한 출신성분과 이주배경, 연해주 한인들은 ‘고려사람’, 사할린 한인들은 ‘조선사람’, ‘한인’) 3. “거주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410쪽) 4. “강제이주와 강제징용, 재이주와 본국 귀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1954년 이후 연해주 사회의 재형성, 1945년 이후 사할린 사회의 변화, 소련의 민족정책 속에서 형성된 한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411쪽)

12) 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403쪽.

러시아와 한반도	7.7 %	8.1 %	3.3 %	11.1 %	10.0 %	7.0%	15.8%	3.6 %	3.9 %	11.3%	11.5%	7.1 %
----------	-------	-------	-------	--------	--------	------	-------	-------	-------	-------	-------	-------

=> ① 전체적인 결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조국을 '러시아'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자 중 86.8%로 1위, '러시아와 한반도'를 택한 비율이 7.7%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따져봤을 때, 재러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자신의 거주국을 조국으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재중 조선족'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 ② 거주지의 구분: 사할린 거주 한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러시아'로 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해주 지역은 86.1%, 사할린 지역은 93.3%)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은 '러시아와 한반도'라고 답한 비율도 적다.(연해주 거주 한인 8.1% vs. 사할린 거주 한인 3.3%) 사할린 지역의 한인들에게 보이는 강한 거주국 지향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③ 출생지 구분: 여기에는 사할린 출생 한인들이 갖는 독특한 경험과 역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조국을 '남한'이라고 답한 사할린 출생의 한인 답변율이 연해주 출생의 답변과는 달리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징용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해주 지역 거주 한인들과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한인들보다 다른 민족과의 만남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없었다는 경험, 그리고 강제징용이 유발한 강한 뿌리의식과 현지적응의 강력한 필요성이 '거주국' or '본국'의 지향성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④ 연령대 구분: 경향성만을 놓고 볼 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러시아'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대와는 달리 10대의 경우엔 84.2%만이 '러시아'라는 답변을 선택했다.(20대 96.4%, 30대 90.9%) 대신 10대에는 '러시아와 한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발견할 수 있다. (10대 15.8%, 20대 3.6%, 30대 3.9%)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남쪽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한반도와의 동질감 향상, 타민족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확립, 러시아 내에서의 민족적인 이질감 등등이 작용하여 '러시아와 한반도'라는 이중적인 조국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중정체성이 더욱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할까? 그렇다고 하기엔 하지만 동일한 젊은 세대인 20-30대에게는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택한 비율이 높다. 10대와 20-30대의 답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의 가설을 세우자면, 20-30대에게는 경제영역을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중적인 조국 지향성이 아닌 거주국에 대한 강한 지향성일 것이다.

=> ⑤ 전체적인 특이점: 재러 고려인들에게 조국을 묻는 질문에 '북조선'을 택한 사람이 없다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186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의 역사에서 그들의 선조가 살았던 고향을 따지자면 사실 지금의 북조선이 다수를 차지할텐데, 왜 북조선을 택한 비율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와 비슷하게 '한반도'라고 답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들에게 분단 이전의 한반도라는 '근원적 고향'은 없다고 봐야할까? 특히나 '북조선'과 관계된 근원적 고향은 상실된 것일까? 또한 기존의 다른 설문조사결과에서 보여줬던 1-2세대들의 강한 고향지향성은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60대 이상이 1-2세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만 6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강한 고향지향성은 이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재러 고려인이 생각하는 ‘조국’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2. “워처럼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29.1%	22.3%	96.7%	74.1%	80.0%	16.7%	36.8%	25.5%	26.0%	26.4%	32.7%	32.9%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3%	55.4%		14.8%	10.0%	60.3%	47.4%	58.2%	63.6%	50.9%	42.3%	35.7%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7.7%	8.1%	3.3%	3.7%	7.5%	8.2%	5.3%	1.8%	3.9%	13.2%	7.7%	12.9%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9%	1.0%				.8%		3.6%		1.9%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1.5%	1.7%				1.9%		1.8%	2.6%			2.9%

=> ① 전체적으로 보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29.1%,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3%. 즉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내 선조의 뿌리’,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이러한 답변비율을 보면, 재러 고려인에게 ‘조국’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이 보여주는 강한 ‘현실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 ② 거주지 구분: 이러한 가설은 또한 거주지 지역에 따른 구분에서도 확인된다. 연해주 지역 거주 한인들 중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라는 답변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다.(22.3% vs. 55.4%) 연해주 거주 한인들에게 조국은 ‘태어난 곳’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사할린 거주 한인들에게 조국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닌 ‘태어난 곳’을 의미한다.(‘살고 있는 곳’ 0% vs. ‘태어난 곳’ 96.7%) 같은 고려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국’의 의미는 이처럼 달라진다. 그렇다면 조국의 의미가 갖는 강한 현실지향성과 더불어, 연해주 지역 거주 한인과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답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 ③ 출생지 구분: 이것은 아마도 20세 이상의 그들이 겪었던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연장선 상에서 따져볼 때 확인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연해주 출생은 14.8%, 사할린 출생은 10%만 선택한 반면, 중앙아시아 출생들은 60%가 넘게 선택하고 있다.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했던 한인들에게는, 특히나 중앙아시아 출신 연해주 거주자에게 그들의 조국 정체성(국가정체성)이란 곧 강제이주와 재이주라는 고된 경험들이 만들어낸 ‘현실지향

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즉 '지금 내가 속해있는 공간=조국'인 셈이다. 반면 강제이주¹³⁾와 재이주를 겪지 않았고 한 곳에만 오래 머물렀던 사할린 거주 한인들에게 '조국'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보다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거주자의 상이한 경험배경들이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인식틀의 차이를 생산한다.

=> ④ 연령대 구분: 연령대의 구분에서도 '조국'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은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태어난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 67%(60대 이상)->77%(50대)->77%(40대)->89%(30대)->83%(20대)->84%(10대)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예컨대 40대 이상은 평균 11%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4%로 대로 줄어들고 있다.

=> 정리: 정리하자면 시대가 지날수록 재러 고려인에게 '조국'은 여타의 다른 요소들보다는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재러 고려인이 갖는 여러 경험들이 작동해서 생긴 결과이다. 즉 재러 고려인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강제이주'와 '재이주'라는 지난한 경험들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성한다. 그렇다면 재러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른 층위는 없는 것일까? 예컨대, 재중 조선족에게 확인했던 이중정체성, 즉 국가 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틈새는 재러 고려인에게도 확인가능한가? 아래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자.

표3. “내 조상의 나라(모국)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otal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러시아	21.8%	23.3%	6.7%	11.1%	12.5%	24.5%	15.8%	20.0%	15.6%	32.1%	26.9%	20.0%
조선(북조선)	9.5%	8.4%	20.0%	14.8%	17.5%	7.4%	31.6%	5.5%	5.2%	11.3%	13.5%	7.1%
한국(남한)	15.3%	11.1%	56.7%	14.8%	47.5%	10.1%	15.8%	14.5%	14.3%	15.1%	9.6%	21.4%
한반도	36.2%	38.5%	13.3%	37.0%	12.5%	40.1%	15.8%	45.5%	50.6%	26.4%	28.8%	31.4%

13) 강제이주의 원인: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한 1937년 8월 21일자 극비문서에 의하면, 일본을 위한 한인들의 간첩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한인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한인의 연해주 이주 직후부터 나타났던 한인사회에 대한 견제라는 본질적인 요인과 함께, 러시아 민족주의 대두와 스탈린 독재라는 대내적 요인과 낯이 고조되는 전쟁 분위기는 대외적 요인이 복잡하고도 교묘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러시아는 한인의 연해주 이주 초기부터 한인의 민족의식에 대해 견제하고 있었다. 둘째, 토지문제로 인한 정치불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소수민족의 러시아화를 위한 것이었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민족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다섯째, 일본과의 전쟁 구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윤기 외, 102쪽)

러시아와 한반도	15.0 %	16.6 %		18.5 %	5.0 %	16.3 %	15.8 %	10.9 %	14.3 %	13.2 %	21.2 %	15.7 %
----------	--------	--------	--	--------	-------	--------	--------	--------	--------	--------	--------	--------

=> 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조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한 ‘러시아’의 비율이 줄어 들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지난 ‘재중 조선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러 고려인에게도 ‘조국’ vs. ‘모국’이라는 ‘이중정체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특이하게도 ‘조국’을 묻는 질문의 답변율보다는 ‘모국’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21.8%, ‘북조선’ 9.5%, ‘남한’ 15.3%, ‘한반도’ 36.2%, ‘러시아와 한반도’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연해주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의 역사가 160여년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다시 말해 재러 고려인은 이미 세대 구분상 이주 6세대 전후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내 선조의 나라는 ‘러시아’일 수도 있으며, ‘한반도’일 수도, 아니면 이 둘을 포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조국을 묻는 질문과는 달리 ‘한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36.2%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조국을 묻는 질문에서 선택비율은 0.9%) 그들의 모국에는 ‘한반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모국’과 ‘한반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 ② 거주지 구분: 연해주 거주 한인의 경우엔 자신의 모국을 ‘한반도’라고 답한 비율이 38.5%였으나, 사할린 거주 한인의 경우엔 56.7%가 자신의 모국을 ‘남한’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사할린 거주 한인의 경우엔 자신의 모국을 ‘러시아’라고 답변한 비율이 6.7%로 매우 작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연해주 거주 한인의 경우엔 23.3%). 나아가 비슷하게 ‘북조선’이라 답변한 비율도 20%나 된다. 즉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들에게 모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라는 일반적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자신의 모국지향성이 하나의 구체적인 나라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의 경우 자신의 모국을 ‘러시아와 한반도’라고 답변한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연해주 지역 거주 한인들 보단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들의 모국지향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사할린 거주 한인들에게 ‘조국’에 대해 물어봤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도 그들은 타민족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타의로 인한 고향상실이 있었다는 점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동한 듯 보인다.¹⁴⁾

=> ③ 연령대의 구분: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20대와 30대가 자신의 조국을 ‘한반도’라 답변한 비율이 45.5%, 50.6%로 높은 비율을 차지(10대 15.8%, 40대 26.4%, 50대 28.8%, 60대 이상 31.4%)하고 있다. 20/30대에게 조국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를 택한 비율이 낮다는 것을

14) 사할린 한인 구성은 대체로 3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할린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원주 한인),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서 이곳으로 파견된 노동자(북한 파견 노동자), 그리고 소련의 각지로부터 이곳으로 보내진 한인(소련 한인)들이다. 1. ‘원주 한인’은 일제 강점기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남쪽에서 징용되어온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인’ 또는 ‘한인’이라고 칭함, 2. ‘북한 파견 근로자’들은 전쟁 후인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 북한에서 소련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 중 사할린으로 보내진 사람들, 3. ‘소련계 한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으며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가운데 소련 당국이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위해 파견한 사람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정남 선생의 논문, 188쪽 이하를 참고하라.

염두에 두자면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20대와 30대에겐 그들의 모국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반대급부처럼 러시아 사회를 통해 요구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모국의 의미를 묻는 다음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표4. “워처럼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12.6%	11.8%	20.0%	33.3%	25.0%	8.6%	21.1%	14.5%	13.0%	13.2%	9.6%	10.0%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2.3%	13.5%			2.5%	15.2%	21.1%	10.9%	13.0%	7.5%	17.3%	10.0%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66.3%	64.9%	80.0%	63.0%	67.5%	66.1%	47.4%	69.1%	68.8%	64.2%	63.5%	70.0%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2.5%	2.7%		3.7%	2.5%	2.3%	10.5%	1.8%	2.6%	3.8%	1.9%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1.5%	1.7%				1.9%		1.8%	1.3%	3.8%		1.4%

=> 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모국을 택했던 이유는 66.3%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모국’을 규정하는 것에는 다른 지역, 예컨대 재중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특징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때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인 반면 모국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가장 확연한 구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내 조상의 나라’라고 재러 고려인의 기본적 인식틀에는 ‘정신과 문화’보다는 ‘내 선조의 뿌리’라고 하는 무형의 의미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이주 160여년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언어-풍속-문화등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20/30대의 ‘모국’=‘한반도’라는 특이한 경향성을 설명해 준다. 재러 고려인의 20/30대의 경우엔 어렸을 적에 재이주를 경험한 세대인 특수성을 지닌다. 그들에게는 재이주의 경험을 통해 내 조상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서 ‘모국’이 다른 세대들보다 강하게 요구되었을 것이며, 또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나라가 아닌 근원적인 고향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다.

=> ② 거주지 구분: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연해주 지역보다는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들의 경우에 보다 큰 모국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강제징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원치 않았던 강제징용으로 인한 사할린 거주한인의 경우엔, 내 선조에 대한 뿌리의식이 연해주 지역보다 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의식은 강제징용 이전의 고향이었던 ‘남한’에 집

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연령대 구분: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한 연령별 구분에서의 특징은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올수록 ‘태어난 곳’과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젊은 연령층에게는 ‘조국=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과 ‘모국=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층에게는 재러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이 10대의 경우엔 10.5%를 차지(반면 20대 1.8%, 30대 2.6%, 40대 3.8%, 50대 1.9%)했다는 점에서, 10대의 경우엔 ‘이중정체성’이 오히려 더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의 이중정체성이 ‘조국=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 vs. 모국=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이중정체성’이었다면, 10대의 경우엔 모국의 의미에 ‘정신과 문화’가 추가되어 말 그대로 ‘이중-정체성(multi-identity)’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엔 40대 이상이 고난한 역사를 통해 잊고 있었던 ‘정신과 문화’에 대한 강조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음의 물음과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5. “자신이 속한 민족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러시아 고려인	70.6%	69.9%	76.7%	51.9%	65.0%	73.5%	31.6%	83.6%	66.2%	69.8%	75.0%	72.9%
한민족	.3%	.3%				.4%		1.8%				
조선민족												
고려인	27.6%	28.0%	23.3%	44.4%	30.0%	25.3%	63.2%	14.5%	32.5%	28.3%	25.0%	24.3%

=> 이 표를 통해 재러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민족의 호칭을 70.6%가 ‘러시아-고려인’, 27.6%가 ‘고려인’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사실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재러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

=> 하지만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연해주가 출생지인 조사대상자 중 44.4%가 자신의 민족호칭을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실이다.(사할린 출생 30%)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연해주 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고려인이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연해주 출생이 가능한 사람은 1937년 이전 출생자이거나 1993년 이후의 출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고려하고 연령별 구분을 봤을 때 10

15) 재중 조선족의 답변 비율과 거의 동일함.

대의 경우엔 63.2%가 자신의 민족 호칭을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실과 맞아 확률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즉 1993년 이후에 연해주에 태어난 20대 미만의 재러 고려인인 경우엔 자신의 민족 호칭을 ‘고려인’이라고 칭한 비율이 ‘러시아-고려인’이라고 칭하는 비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들의 민족 호칭에는 ‘고려인’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앞 선 질문과 연관선상에 판단했을 때, 재러 고려인이 갖는 ‘이중-정체성 (multi-identity)’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된다. 앞 선 세대가 ‘조국’과 ‘모국’의 갈림길에서 ‘인지적 정체성’, 즉 ‘이중정체성’을 형성했다면, 이들은 ‘조국’과 ‘모국’의 갈림길을 벗어나서 그들의 독자적인 ‘고려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¹⁶⁾

=>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가능하다.¹⁷⁾ 답변을 보면 연해주 출생 답변자 중 22.2%가 ‘러시아인과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과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변한다.(사할린 출생 7.5%, 중앙아시아 출생 7.8%). 비슷하게 10대의 경우엔 36.8%가 ‘러시아인과의 한반도 사람들과의 차이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고려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20대가 5.5%, 30대가 9.1%, 40대가 5.7%, 50대가 11.5%, 60대 이상이 4.3%라는 비율을 따져볼 때, 압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답변은 ‘러시아인’과 다르게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과도 다른, 재러 고려인의 고유한 이중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16)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들의 독자적인 고려인 정체성에는 앞 선 세대와는 달리, ‘정신과 문화’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러 고려인의 앞 선 세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후 세대들은 전 세대들의 경험구성적 정체성을 흡수하면서도 독특한 추체형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17)

	T1 To tal	출생 지			연령대					
					연 체	사 할 린	중 앙 아 시 아	10대	20대	30대
사례수	326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69.3%	51.9%	70.0%	70.8%	36.8%	80.0%	67.5%	71.7%	69.2%	70.0%
남과 북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4.9%		2.5%	5.8%	5.3%	5.5%	2.6%	13.2%	3.8%	1.4%
한반도(조선반도)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9.2%	18.5%	15.0%	7.4%	21.1%	1.8%	15.6%	7.5%	1.9%	11.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2.1%	7.4%		1.9%		1.8%	2.6%		5.8%	1.4%
나는 러시아인과의,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과도 정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8.9%	22.2%	7.5%	7.8%	36.8%	5.5%	9.1%	5.7%	11.5%	4.3%

18) 특히나 자신이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람들 중 27.8%가 그것의 이유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23.3%가 ‘러시아와 한반도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8.9%가 ‘남과 북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 추가할 것.

있다.

정리: ‘조국’과 ‘모국’의 갈림길에서 재러 고려인은 어떠한 이중정체성을 소유하는가?

① 재중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재러 고려인들에게도 ‘국가’ vs. ‘민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조국’과 ‘모국’의 갈림길에서 보여지는 재러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은 특히나 연해주 지역 한일들 보단 사할린 지역 한인들에게 보다 특징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즉 ‘조국=러시아’ vs. ‘모국=북한 or 남한 or 한반도’라는 확연한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¹⁹⁾

② 같은 재러 고려인이라고 하더라도 연해주 지역과 사할린 지역의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경험차원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는 ‘자발적 이주-강제이주-재이주’의 지난한 체험과정이, 후자는 ‘강제징집’의 거대한 하나의 체험과정이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 즉 같은 재러 고려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험과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이중정체성’을 보여준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경험들이 어떤 구성원들에게 체험되면 상이한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그런데 다른 중요한 사실은 연해주 출생의 젊은 연령대로부터 이러한 이중정체성의 틈새, 다시 말해 ‘고려인’이라는 특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해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족교육의 강화, 다양한 민족과의 마주침, 다양하고 상반된 정치/경제적 제도를 경험, 연해주 개발과 관련해서 남한에 대한 기대 혹은 반대심리, 러시아 이주 160여년 간의 지난한 경험, 강제이주와 재이주에 대한 추체험 등이 원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재러 고려인의 앞 선 세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했다면, 후 세대들은 전 세대들의 경험구성적 정체성을 흡수하면서도 독특한 추체험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앞 선 세대들과는 다르게 ‘정신과 문화’가 보다 강하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④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민족공통성은 단순히 하나의 민족에서 보여지는 혈연적/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다. 민족공통성은 그들의 거주국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재구성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공통성은 어쩌면 차별, 억압, 배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저항과 적응의 구도 속에서 형성된다는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재러 고려인이 보여주는 ‘고려인’을 강조하는 ‘조국’ vs. ‘모국’의 이중정체성의 틈새도 재러 고려인의 고유한 경험과 극복과정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따라서 이중정체성의 틈새에서 발견되는 재러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의 특징은 차별과 배제를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극복과 적응을 염원하는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 선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재러 고려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중-정체성

19) “④ 조국인식: 자신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러시아 53%’, ‘중앙아시아 33%’, ‘남한 6.3%’, ‘북한 3.2%’. ⑤ 정리: “연해주 고려인들 대부분은 서로 가깝게 생활하고 있으며, 고려인 대부분은 고려인으로서 높은 긍지를 지니며 살고 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주로 ‘고려인 55.8%’, ‘러시아 22.5%’, ‘중앙아시아 15.8%’적인 반면, 자신의 조국은 과반수 이상이 러시아를 그들의 조국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의 고려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인들의 연대 기제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민족의식 42.8%’이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들과 타민족과의 관계는 대부분 원만하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다소 우세하지만 상당수는 반대하고 있다.” 임채완, 58쪽.

(multy-identity)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족공통성은 이들의 경험을 객관화시켜 하나의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러 고려인의 독특한 이중정체성의 특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안겨 주는가?

Ⅲ. 정서-문화적 정체성: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경험들, 그리고 재러 고려인의 극복과 적응의 변증법

해외 한인 동포에 대한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는 명백했다. 예컨대, 해외 한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거주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는 반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주로 민족적 특성을 따라가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해외 한인들은 한민족으로서 높은 긍지를 지니며 살고 있다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이것은 철저히 본국중심적인 특이나 한국 중심적인 설문조사분석일뿐더러, 해외 한인의 이중적인 정체성 및 그것의 변화되는 양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정서와 문화에 대한 강조는 어쩌면 본국중심적인 프레임에 갇혀 해외 한인들을 우리 멋대로 그려내는 ‘공상’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첫째, ‘이중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 ‘이중정체성’과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실수는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인한 일방적인 규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단순히 한반도, 특히 남한과의 공통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앞 선 인지적 정체성과의 영향 하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그것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해외 한인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같지만 다른’ 한 민족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앞 서 살펴봤듯이 ‘인지적 정체성’에 틈새에서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은 항상 ‘다름’에 대한 정서로부터 시작된다.²¹⁾

표1. 싫든 좋든 내가 한민족(조선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전체)	거주지			출생지			나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정서적인 공감대	1.5%	1.0%	6.7%	3.7%	5.0%	.8%		1.8%	1.3%		1.9%	2.9%	
같은 언어	6.4%	6.1%	10.0%	7.4%	12.5%	5.4%	10.5%	1.8%	3.9%	9.4%	9.6%	7.1%	
비슷한 생활풍습	14.7%	15.5%	6.7%	11.1%	15.0%	14.8%	36.8%	9.1%	11.7%	28.3%	11.5%	8.6%	

20) 이러한 의미에서 박영균 선생은 민족공통성을 ‘가족유사성’의 의미에서 설명한 바 있다.

21) 이에 대해서는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에 수행된 재중 조선족의 민족공통성 설문조사 프로젝트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박영균, . . . 을 참고하라.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	26.4%	26.4%	26.7%	29.6%	27.5%	25.7%	31.6%	41.8%	19.5%	32.1%	25.0%	17.1%
같은 핏줄	40.8%	40.5%	43.3%	37.0%	25.0%	44.0%	15.8%	40.0%	48.1%	26.4%	38.5%	52.9%
비슷한 사고방식에서	3.1%	3.4%				3.9%		1.8%	9.1%		3.8%	

=> ① 신기하게도 그들의 느끼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성에는 '재중 조선족'과 유사하게 '다름'에 대한 정서가 존재한다.²²⁾ 이것은 단순히 타민족과의 '다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동질감은 표에서 보다시피 '정서적인 공감대' 때문은 아니었다. 정서적인 공감대 때문에 한민족임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은 단지 1.5%에 불과했다. 이것은 강한 본국지향성을 갖는 사할린 거주/출생 한인들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같은 핏줄'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고른 편차 속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으며(약 40%),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두 번째 이유를 차지했다.(약 26.4)

=> ② '같으면서 다른'이 갖는 **형용모순, 동질감과 비동질감의 동질감**: 재러 고려인의 정서-문화적 정체성은 '타민족과 다르면서 같은 민족과는 같은'이라는 오래된 경험과정 속에서 마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서-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아리랑'을 부른다거나 '한복'을 입는다거나 혹은 '한글'을 쓴다는 것과 연결된 정체성은 아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심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생기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정서-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선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같은 핏줄이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40%정도 밖에 안 될 뿐더러 같은 언어, 같은 생활풍습,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5%나 차지하는 결과 값에서 유추해보건대, '같음'을 느끼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은 '다름을 느끼는 감정이 같음'이 중요한 공통적 토대로서 작동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름'을 느끼는 감정과 '같음'은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통일되어 재러 고려인의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기본적 토대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는 '다름'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우선 다음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자.

표2. "러시아 내의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거주지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항상 느낀다	7.4%	8.1%		11.1%	5.0%	7.4%		7.3%	6.5%	7.5%	11.5%	7.1%

22) 박영균, 「재중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66쪽 참고.

23) 하지만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은 당연히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나 10대의 경우에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재러 고려인의 정서-문화적 정체성이 갖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그들이 한민족을 느끼는 이유에는 '비슷한 생활풍습'(36.8%)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뒤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31.6%), 같은 핏줄(15.8%), 같은 언어(10.5%)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서-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같은 핏줄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갖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특징은 '다름'과 '같음'의 감정 속에서 생활풍습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가끔 느낀다	50.3%	51.0%	43.3%	37.0%	50.0%	52.1%	47.4%	38.2%	49.4%	50.9%	61.5%	52.9%
느끼지 못한다	42.3%	40.9%	56.7%	51.9%	45.0%	40.5%	52.6%	54.5%	44.2%	41.5%	26.9%	40.0%

=> 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름’을 느끼는 정서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재중 동포의 답변율이 약 85%라는 점과 비교할 때 재러 고려인의 다름에 대한 느낌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흥미로운 점은 사할린 지역은 오히려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느낌: 43.3% vs. 못느낌: 56.7%). 출생지로 비교할 땐, 연해주 지역 출생자에겐 못느낀다는 비율이, 사할린은 대동소이, 중앙아시아는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세대별 구분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대로 진행할수록 느낀다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0대 73%, 40대 58%, 55%, 45%, 47%) 그렇다면 ‘다르다’라는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선적으로 거주국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표3. “러시아는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조사대상자		출생지			나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매우 그렇다	15.0%	14.9%	16.7%	3.7%	20.0%	15.6%	26.3%	16.4%	10.4%	22.6%	17.3%	8.6%
약간 그렇다	52.8%	50.3%	76.7%	63.0%	72.5%	48.2%	52.6%	47.3%	57.1%	54.7%	57.7%	47.1%
그렇지 않다	30.4%	32.8%	6.7%	25.9%	5.0%	35.0%	10.5%	34.5%	31.2%	22.6%	25.0%	41.4%
전혀 그렇지 않다	1.5%	1.7%		7.4%		1.2%	10.5%	1.8%	1.3%			1.4%

=> 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름’의 정서를 느끼는 비율은 6:4정도였다면, 거주국에서의 자국중심의 민족주의를 느끼는 비율은 오히려 6.8:3.2로 높아지고 있다. 즉 다름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60%였는데, 그들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67%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② 또한 거주지의 구분에서 살펴보면, 연해주 지역은 65%가 강하다고 느끼고 사할린지역은 93%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출생자들은 약 36%로 다른 지역 출생자에 비해 높은 비율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사할린 지역 출생자들은 5%만이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할린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한인의 경우엔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보다 러시아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²⁵⁾

24) 추가할 것.

25) 시대별 구분을 봤을땐, 10대 80% 20대 63%, 30대 67%, 40대 76%, 50대 74%, 60대이상, 55%가 느끼고 있다고 대답. Q65. “최근 러시아에서 실시하는 민족정책에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같이 보여줄 것

=> ③ 이것은 러시아 중심의 강한 민족주의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러시아 민족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 하다. 이것은 역시나 중앙아시아에서 소비에트인으로 성공한 한인들의 오랜 시간 형성된 자긍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²⁶⁾

=> ④ 그런데 앞 서 ‘인지적 정체성’과 연결시켜 봤을 때, 특히나 시대별 구분에서 10대의 경우엔 80%가 강한 민족주의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향성이 ‘고려인’이라는 인지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눈에 띈다. 또한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강한 민족주의를 느낀다는 답변이 20-30대에게 상대적으로 적었다. 20-30대에게 ‘인지적 정체성’은 ‘고려인’이 아닌 ‘러시아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²⁷⁾ 정리하자면 10대는 강한 민족주의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민족과의 차이를 느끼는 정서는 적었다고 할 수 이다. 10대에게 보이는 독특한 자신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과 연관된 차별의 경험은 어떻게 될까? Q. 3 “나는 러시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다.”²⁸⁾ 약 56%가 ‘없다’, 약 42%가 ‘있다’고 대답한다. 흥미롭게도 ‘다르다’고 느끼며 (57%), ‘강한 민족주의를 느낀다’고 대답했음에도(67%) ‘차별은 받아본 경험은 없다’고(56%) 대답한다. 이럴 경우 다르다는 느낌은 배제와 차별, 억압으로 야기된 상대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⁹⁾

=> ⑥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재러 고려인의 정체성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60년대 차별과 배제로부터 시작된 재러 고려인의 정체성은 1937년 강제이주와 1993년 재이주라는 극복과 적응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아픔과 좌절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지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³⁰⁾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경험과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상관관계? 또는 연결고리??

=> ⑦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주는 근거: 사할린 거주 한인과 사할린 출생 한인의 경우엔 ‘차별

26) 강제이주 이후의 한인들의 정체성 특징: “한인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언어도 무시하고 그들의 문화도 무시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문화보다는 러시아 문화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소련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이윤기 외, 115쪽)

27) 중앙아시아 출생의 재러 고려인의 특성: “한편 갖은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한인들의 위대한 생명력은 그들의 교육열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모국어마저 교육받을 수 없게 된 한인들에게 오로지 러시아 문화를 빨리 흡수하고 대학교육을 받는 것만이 소련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모은 힘을 다해 자녀교육을 뒷바라지했고 그 결과 한인 2세대와 3세대들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에 근무하고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다.”(이윤기 외, 114-115쪽)

28) Q63.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차별 중에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 경험을 세부적으로 소개. 이 결과를 재러 고려인의 정서-문화적 정체성이 능동적 정서를 지닌다는 가설로 연결시킬 것.

29) Q61. “‘너희 나라로 돌아가’와 유사한 소리를 한번쯤 들은 적이 있다.”와 비교할 것.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자면, 제일 조선인과의 비교분석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줄 것 같음. 참고: “소수민족으로서 연해주 고려인의 사회적 대우에 대하여 ‘러시아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49.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소수민족으로서 차별 당하고 있다. 24.6%’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가능성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임채완, 58쪽)

30) Q64. “만약 차별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로 근거짓기

받아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50% vs 47%’, ‘57% vs. 40%’로 차별받았다는 답변률이 더 높다. 사할린 출생 한인의 경우엔 조국선택비율도 다수가 선택한 ‘러시아’를 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을뿐더러, 모국의 선택비율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남한’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할린 지역의 민족정체성은 아직도 강한 본국지향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남한이었는데, 아마도 연해주 지역보단 극복과 적응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며, 또한 남한의 귀환정책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재러 고려인이 보이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특성은 무엇일까? 일부 조사에 따르면 재러 고려인의 ‘자긍심’이 강조된다. 재러 고려인이 갖는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특성은 ‘자긍심’을 기본적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표4. “타민족 사람과 만날 때 내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거주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알리고 싶다	69%	72.0%	40.0%	59.3%	50.0%	73.2%	42.1%	58.2%	67.5%	64.2%	73.1%	87.1%
감추고 싶다	0.3%	0.3%				0.4%			1.3%			
상관없다	30.7%	27.7%	60.0%	40.7%	50.0%	26.5%	57.9%	41.8%	31.2%	35.8%	26.9%	12.9%

=> ① 전체적으로 69%가 ‘알리고 싶다’, 30.7%가 ‘상관없다’, 오직 0.3%만이 ‘감추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여타의 설문조사와 같이 재러 고려인의 ‘자긍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답변율이 다른 지역 출생자들보다 (73.2% vs. 59.3%, 50%) 높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출신 한인들의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경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³¹⁾

=>②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예컨대 ‘감추고 싶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세대별로 여전히 없거나 거의 없다는 답변이 나오지만, ‘알리고 싶다’는 비율은 세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87.1%→73.1%→64.2%→67.5%→58.2%→42.1%), 동시에 ‘상관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12.9%→26.9%→35.8%→31.2%→41.8%→57.9%) 사실이다.

=> ③ 이것은 인지적 정체성의 특징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앞서 살펴봤듯이 ‘조국 vs. 모국’이라는 구도에서 ‘인지적 정체성’의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틈새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한민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31) ② 민족적 자긍심: 고려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91%는 긍정적인 답변, 부정적인 답변은 8%. 이러한 비율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사 대상 지역이 중앙아시아와 달리 중국 조선족 거주 지역 및 한반도와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임채완, 50쪽)

는 정서적 바탕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컨대, 강제이주와 재이주³²⁾, 그리고 극복과 적응의 경험이 변증법적으로 작동하면서 재러 고려인만의 독특한 정서-문화적 정체성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이것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54%가 “굳이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것과 더불어 32.6% “내가 고려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물론 러시아 민족정책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음.³³⁾ 하지만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32) ③ 1937년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극동의 한인들은 소비에트에 거주하는 민족 중 최초로 강제이주를 겪은 민족이다. 한인의 강제이주 이후, 게르만 족, 쿠르드족, 크림지방의 타타르족, 폴란드족, 체첸족 등 수십 민족의 강제이주가 이어졌다.”(김계르만, 195쪽) 강제이주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소련의 대외적 정책의 희생양(중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추후 조직화된 한인들에 대한 두려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인력난 해결과 개발을 위해 등등이 꼽힌다.(김계르만, 196-200쪽)

③-1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정착기, 강제이주기(1937-1938년): 1937년 8월 21일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는 극동 지역에서 한인을 이주시킨다는 결정을 채택, 공식적인 이유는 ‘극동지방에서 일본 정보원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이 문서에서 이주의 진정한 목적이 그대로 드러났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한인 강제이주의 동기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인 첩자 침투 방지라는 이유가 정책 입안자의 편집적 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단지 한인을 추방하려는 구실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 강제이주의 실질적 동기는 오히려 극동에서 한인을 제거하려는 오래된 러시아 쇼비니즘의 발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송호 외, 40쪽) 러시아의 극동지역 정책은 타민족의 분산과 이주라는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었음, 다만 그것이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시행되지 못했을 뿐, 1937년 결정적인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내부적인 준비과정이 완성되자 곧 실행. “예조프는 1937년 10월 25일에 한인 이주사업이 기본적으로 완결됐다고 보고했다. 총 124대의 수송열차가 투입되어 36442가구 161781명이 중앙아시아로 이송됐으며, 극동지방에 700여명 정도가 잔존해 있는 바 이들은 11월 1일경 수송열차로 이주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한인 중 우즈베키스탄에 16272가구 76525명, 카자흐스탄에 20170가구 95256명이 이주됐다고 한다.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체르니셰프가 11월 16일자로 예조프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한인 이주민을 실은 마지막 열차가 11월 15일 노보시비르스트에 도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인은 극동지역에서 모두 제거됐다.”(이송호 외, 42쪽)

③-2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정착기, 정착기(1939-1991년): “이로써 한인은 이제 내륙에 갇힌 포로가 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적어도 1953년까지, 즉 강제이주 후에도 16년간 집단적으로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하게 됐다.”(이송호 외, 49쪽) “한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38년 스탈린의 특명으로 한국어를 소련 내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인에 대한 민족교육이 금지되고, 적성민족으로서 공화국 외의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군복무도 할 수 없고 국가기관 취업 및 취학이 제한됐으며, 사회정치적 진출이 봉쇄되는 등 한인은 마치 적국의 포로와도 같은 차별대우를 묵묵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이송호 외, 50쪽) 이러한 한인 억압정책에 대한 복원은 1989년에 이루어짐.

33)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 (이송호 외, 59쪽)

시대구분	소수민족정책	
제정러시아	대러시아 국가건설을 위한 소수민족 정복과 지배정책	
소비에트연방	레닌	민족자결과 민족간 평등한 협력정책
	스탈린	대러시아주의에 입각한 소수민족 억압 및 러시아화, 일부 소수민족 강제이주
	흐루시초프	소수민족 통제 완화, 11개 소수민족의 공민권 회복
	브레즈네프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강화

틈새에서 발견한 것,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적응과 극복의 변증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

표5.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 가운데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하나만 고르세요.”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4.6%	5.1%		11.1%		4.7%	5.3%	5.5%	2.6%	7.5%	5.8%	2.9%
충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	20.2%	20.3%	20.0%	18.5%	17.5%	20.6%	10.5%	23.6%	16.9%	24.5%	21.2%	20.0%
한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	42.6%	41.6%	53.3%	44.4%	47.5%	42.0%	57.9%	27.3%	45.5%	39.6%	55.8%	40.0%
혈연적인 순수성(민족적 동질성)	21.2%	23.0%	3.3%	14.8%	10.0%	23.7%	10.5%	34.5%	22.1%	15.1%	13.5%	22.9%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인 가치	2.5%	1.7%	10.0%	3.7%	7.5%	1.2%			1.3%	3.8%	1.9%	5.7%

=> ① 한글 등의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로 답한 비율이 4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답변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을 묻는 또 다른 질문에서 ‘문화’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33.1%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언어’는 8%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재러 고려인이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란 말 그대로 언어와 생활 풍속 등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문화라고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고유한 문화는 그들이 겪은 독특한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역사 역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민족 정체성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단지 4.3%만이 ‘역사’라고 답변한 결과 값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이 민족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날뿐더러 세월이 지나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문화’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재러 고려인이 경험한 강제이주와 재이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과 적응의 결과물인 독특한 재러 고려인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표6.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고르바초프	소수민족의 자치인정, 일부 소수민족 독립허용
러시아연방	민족간 평등 및 자결원칙 채택, 소수민족 자치권 확대허용, 그러나 독립은 불허	

	거주지역			출생지역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26	296	30	27	40	257	19	55	77	53	52	70
민족학교 보존	7.4%	6.4%	16.7%	7.4%	10.0%	7.0%	5.3%	16.4%	7.8%	5.7%	5.8%	2.9%
언어-문자 보존	13.2%	11.5%	30.0%	11.1%	25.0%	11.3%	10.5%	18.2%	3.9%	13.2%	15.4%	18.6%
민족 풍속의 유지	25.2%	25.7%	20.0%	11.1%	20.0%	27.6%	21.1%	29.1%	31.2%	34.0%	13.5%	18.6%
민족 역사 문화 교육	32.8%	33.4%	26.7%	44.4%	35.0%	31.1%	42.1%	25.5%	33.8%	32.1%	42.3%	28.6%
고려인 마을 보존	13.2%	14.5%		14.8%		15.2%		7.3%	18.2%	5.7%	15.4%	20.0%

=> ① 결과를 살펴보면,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라고 답변한 비율이 32.8%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민족 풍속의 유지’라고 답변한 비율이 25.2%로 2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서는 눈에 띄는 특징이 보이지 않지만, ‘언어-문자 보존’이라고 답변한 비율과 비슷하게 ‘고려인 마을 보존’을 선택한 비율이 13.2%나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 한인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자면 독특한 전개이다. 예컨대, ‘민족학교 보존’이 재중동포에게는 1위인 것과는 달리 재러 고려인에게 7.4%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재중 조선족에게는 ‘조선족 마을 보존’이 8%로 최하위인 것과는 달리 재러 고려인의 경우엔 ‘고려인 마을보존’을 선택한 비율이 13.2%로 3위인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글과 같은 유형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특히나 재러 고려인에게 일상어의 선택비율이 ‘조선어’ 1.8%, ‘러시아어’ 53.4%, ‘섞어서 쓴다’ 43.6%³⁴⁾라고 답변한 비율로 살펴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는 다른 지역 한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문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이 강조하고 내세우는 민족의 문화적 가치란 사실 한글과 같이 이미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현재 그들을 만들어온 무형의 경험들의 모인 결과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동화과정을 경험하기도 했기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 ③ 그들의 문화는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보존하고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³⁵⁾ 연해주 한인의 역사가 1860-1937년까지의 ‘연해주 한인 성립기’, 1937-현재까지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정착기’로 구분하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정착기’를 또한 1937-1938년까지의 ‘강제이주기’, 1939-1991년까지의 ‘정착기’,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34) 반면 재중 조선족에게 실시한 동일한 질문에서 조선어 70.4%, 중국어 4.0%, 섞어서 쓴다 25.6%라고 답변. 재중 조선족에게 조선어가 일상어임.

35) ③ **가치관과 생활양식:**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어느 문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고려인 56%’, ‘러시아 23%’, ‘중앙아시아 16%’, ‘남한 2.5%’, ‘북한 2.1%’의 순서. 연령이 낮아질수록(학력이 증가할수록) 고려인이라고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드며(10대 48%), 러시아라고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함.(10대 24%)

‘연해주 재이주기’로 구분하여 설명되는 것처럼, 재러 고려인은 다른 지역 한인들과는 다른 이주-강제이주-재이주의 경험들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방향성은 어쩌면 한글과 같은 것을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경험을 후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이었거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집단 정체성에는 민족, 인종, 국가, 종교, 지역, 계급 정체성이 있으며, 민족 정체성은 인종적, 역사적, 문화적 범주에서 ‘조상 대대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⁶⁾는 임채완의 지적처럼, 재러 고려인의 ‘집단적 정체성’은 재러 고려인 집단에 공통된 동류의식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질문과 답변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7.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거주지역		출생지역			나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269	242	27	20	32	215	14	42	66	41	43	63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8%	25.2%	11.1%	25.0%	15.6%	24.7%	28.6%	38.1%	25.8%	26.8%	9.3%	19.0%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66.9%	65.3%	81.5%	70.0%	81.3%	64.7%	57.1%	54.8%	65.2%	65.9%	79.1%	71.4%
월드컵 4강 신화, 한강기적(고도경제성장)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1.1%	1.2%				1.4%		2.4%	3.0%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5.2%	5.0%	7.4%		3.1%	6.0%		4.8%	4.5%	4.9%	9.3%	4.8%

=> ① 결과만을 놓고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이 23.8%인 반면,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자면 재러 고려인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러 고려인의 강제이주의 특징을 말하자면 소비에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의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기본적 특성은 유형의 문화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들의 지난한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강한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재러 고려인만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강조가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은 인지적 정체성과의 연관선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약 90%가 자랑스럽다고 답변한 비율과 함께, 그들의 민족 호칭에서 있어서 ‘러시아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람들 중 83.5%가, 그리고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비율 중 80%가 자랑스럽다고 선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민족 호칭을 ‘고려인’으로 규정한 재러 고려인 중 27.8%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변한 것과는 비교되게, ‘러시

36)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37쪽.

아 고려인'으로 스스로의 민족호칭을 규정한 재러 고려인 중 18.7%만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인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려인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수성에는 높은 자긍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IV. 재러 고려인의 일상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가치관

민족 정체성에는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의 통시적 구조와는 다른 '현재'라는 공시적 구조 속에서 탄생하는 정체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그들이 타민족과는 다른 고려인으로서의 '인지적 정체성'을 느끼든 아니든, 또는 고려인만의 독특한 '정서-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든 안하든 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규정하고 규정되는 '일상적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족, 혈연, 언어, 풍속, 문화 등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의 공통적 요소들은 그 집단 내부에 어떤 동류의식을 새겨놓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승되기 보다는 현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과는 다른 어떤 토대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 정체성'의 핵심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적 정체성은 그들의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문화적 정체성'과의 연관선상에서 형성된다. 특히 재러 고려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경험기반에서 출발한 '정서-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어떻게 본다면 '일상적 정체성'은 '정서-문화적 정체성'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재러 고려인의 '일상적 정체성'은 일상 속의 친밀함으로 표현된다.

Q1. "일상적인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Q1-1 "자신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 Q1의 답변: 이민족 1.5%, 동족 23.9%, 민족과 상관없음 71.8%

=> Q1-1의 답변: 이민족 0.9%, 동족 27.3%, 민족과 상관없음 71.2%. 즉 재러 고려인이 갖는 내적 친밀함과 그들의 내적 친밀함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예컨대 재중 조선족의 경우엔, 일상적인 친교를 나누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59.9%가 '동족'으로, 34.0%가 '민족과 상관없음'이라고 답했으며,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동족'을 59.9%, '민족과 상관없음'을 36.4%로 꼽았다는 사실을 보자면 재중 조선족에게 그들의 일상적 삶은 '동족'과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러 고려인의 일상적 삶은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문화적 정체성'에서의 거주국과의 차이점과는 달리 거주국과 비교적 친근할뿐더러 탈민족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³⁷⁾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적 정체성은 거주국 중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보여줬던 '인지적 정체성'의 틈새와 그들의 지난한 경험을 강조했던 '정서-문화적 정체성'의 특징은 어디로 갔을까? 다음의 질문과 답변에서 어떤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Q2.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은 어디입니까?"

37) Q74. "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에 61.7%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것. 재중 조선족의 경우엔 36%만이 '상관없다'고 답변.

Q2-1. “아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 Q2의 답변으로는 51.8%가 아마도 모임의 구성원이 대부분 같은 민족이었을 ‘친족모임’을 꼽았으며, 23.9%가 역시나 대부분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를 꼽고 있는 반면, 타민족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학교 또는 직장’을 선택한 비율은 2.5%에 불과. 하지만 Q2-1의 답변으로는 48.5%가 ‘러시아’를 꼽았으며, 남한과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합해서 27.3%에 불과.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 정체성의 틈새는 다른 어느 것보다 굉장히 큰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지적 정체성’과 ‘정서-문화적 정체성’이 그래도 한민족의 공통된 정체성과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갖는 반면,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일상적 정체성’은 앞 선 두 정체성과는 달리 굉장히 큰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Q3. 한복을 입는다면 언제 입는지 모두 표기해주세요.

Q3-1.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Q3에서는 57.1%가 ‘안입는다’라고 답변한 것과는 달리, Q3-1에서는 87.1%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된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복은 안 입으면서도 대다수의 러시아 고려인이 김치는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는 모순된 결과는? 이것은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 정체성의 근본적 특성을 보여준다. 재러 고려인의 일상적 정체성은 단순히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는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복을 입거나 말건, 김치를 먹거나 안먹거나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오랜 삶 속에서 하나의 기호, 또는 취사선택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⁸⁾ 즉 한복이라는 문화는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도태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김치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용되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김치의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 삶 속에서 변용되어 전승될 수 있는 것만이 재러 고려인의 일상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많은 자민족 중심의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한계, 즉 단순히 한복과 김치라는 한민족의 ‘기표’만을 가지고 재외 한인의 일상적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Q4.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9.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이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서 충분히 변용되고 변용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일상적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적 정체성이 삶의 과정 속에서 변용가능성의 유무의 기준을 통해서만 형성된 것일까? 아닐 것이다.

38) Q80. “내가 한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82.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과 비교분석 할 것.

Q.5 민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Q5-1 민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5-1.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Q5의 질문에 19.9%만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79.1%가 '없다'라고 답변. 재중 조선족과의 비교에서 보자면 81.5%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18.5%만이 '없다'라고 답변.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재러 고려인의 경우 84.7%가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재중 조선족의 경우에도 89.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 민족교육에 대한 경험과는 상관없이 재러 고려인의 경우엔 그들의 민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것은 재러 고려인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이것은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51.2%가 '언어'를 꼽고 있다는 것에서 또한 확인될 수 있음. 그들에게 한글이 거의 잊혀진 언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에 대한 강조를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재러 고려인만의 '일상적 정체성'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설명될 수 있음.

=> 이것은 재러 고려인의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가 갖는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³⁹⁾ 재이주의 두가지 특징: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연해주 재이주 경향은 199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1990년대 전반기 재이주는 중앙아시아 현지의 민족 갈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 탈출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1990년대 후반기의 재이주는 내전과 같은 위기상황보다는 미래의 경제문제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재이주해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재이주를 결정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윤기 외, 119-120쪽) 즉 그들의 일상적 삶을 구성했던 근본적 요인은 외부적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마도 중요한 요인을 차지했을 경향이 큼.

39) **한인의 연해주 재이주 동기 1:** 이것 크게 세 가지, 즉 교육문제와 직업문제, 귀소욕구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교육문제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 채택한 현지어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어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지어보다는 러시아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직업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이민족 배경에 따른 현상이다. 전반적인 경제난에 따라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데 더해, 현지어 정책과 자민족 우대정책 등으로 한인을 비롯한 많은 수의 타민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었으며...셋째, 귀소욕구는 이들이 러시아 영토 내의 다른 지역이 아닌 연해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많은 한인이 연해주를 선조들이 살았던,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재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송호 외, 72쪽)

한인의 연해주 재이주 동기 2: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분리독립은 50여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던 한인들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다가왔다. 이들 독립국가의 탈러시아 정책과 자민족 중심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들 토착언어와 문화보다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한인들은 이들로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버리고 다시 기차에 올라 연해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확산으로 자민족의 역사와 언어를 공식화함에 따른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에게 토착언어 학습과 토착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문제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해당하는 취학, 취직, 승진에서의 불평등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윤기 외, 117-118쪽)

④ 재이주 한인의 문제점: 첫째, 국적문제는 재이주 한인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 문제. 현재 연해주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1990년대에 이곳으로 재이주한 사람인 것. 그중에서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재이주한 한인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중국적제도로 인해 문제가 없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재이주한 한인은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최소 6-7년을 기다려야 함. 둘째, 정착문제,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여건등. 셋째, 생활문제, 대부분이 농민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음.

①

② 사할린의 한인들: 소비에트 역사학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연구주제였다. 사할린 지역에서 조선인 이주자는 숫적으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다음으로 많은 민족이었다. 그러나 사할린주의 통계연감에는 소수 북방민족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한인이주자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할린의 한인 규모는 1904년-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남사할린섬을 점령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20년 일본 정권은 남사할린섬에서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구는 934명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중반 이후 북사할린섬으로부터의 이주와 조선과 일본으로부터의 노동이주, 그리고 정치 망명자들과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주로 가라후토의 한인인구가 증가하였다."(김계르만, 189-190쪽)

"1939년부터 일본과 남사할린으로의 대규모 한인 노동이주가 시작되었다. 한인 노동이주는 세 단계에 거쳐 이루어졌다. 1939년 9월-1942년 2월까지 이루어진 첫 단계에서 일본인 사업가들은 조선총독부 관료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할린 광산에서 일할 조선의 젊은 노동자들을 징집하였다."(김계르만, 191쪽) 식민통치시기 조선의 열악한 삶의 조건, 징집을 거부할 경우 일본당국으로부터 받게 될 억압과 차별, 봉급과 징집시기, 노동의 성격과 조건을 속였던 점에서 보자면 자발적 신청의 외형을 띤 강제징집. 결과적으로 "1941년 무렵 사할린 거주 한인은 150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100000명의 한인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일본의 광산지대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계르만, 같은 쪽)

1942년 2월 1944년 9월까지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징집, 1944년 9월-1945년 8월까지의 세 번째 단계에서 한인들은 부역을 위해 남사할린으로 이주해갔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의 사할린 한인 규모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소비에트 정권은 약 30000여명일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보다는 두 배 정도 더 많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역사학자 스테판은 50000여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김계르만, 192-193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사할린의 한인 이주자들의 실제 규모는 50000명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계르만, 193쪽)

① 갈등적 민주주의의 관점을 좀 더 발본화하면서 비교적 최근년에 시도되고 있는 신공화주의

(neorepublicanism)의 다양한 기획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헤르만 판 힌스테런은 『시민권의 이론들』(A Theory of Citizenship, 1988)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구 공화주의의 대안들이 모두 낡아버린 현재의 이념적 정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운명공동체’(community of fate)라는 새로운 기획을 제안합니다. 이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처럼 하나의 기원에서 출발해 공통된 목적지(destiny)를 향해 간다고 가정되는 공동체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의 경우처럼) 서로 이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원하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공통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공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갈등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서 공화국을 바라보는 관념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하고, 또 이에 관해 우리가 함께 논의할 때, 현재의 부정의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⁴⁰⁾

② “오늘날 연해주는 경제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현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시베리아 자원의 공동개발과 한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은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연해주는 한국이 육로로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우리 민족의 일부인 고려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한민족의 경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지역이다.”⁴¹⁾

V. 마치며: 재러 고려인과 민족공통성

㉑ 한인 자치지역 건설의 방향성, 민족공통성을 이해하는 방향성: “추진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대전제는 과도한 민족의식에 근거한 전략과 정책을 자제하고 모든 협력과 지원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인 자치지역을 포함하는 전체 연해주가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역사가 안목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 협력 강화는 러시아 정부가 가장 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해주 한인의 생활 기반 구축,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연해주 한인의 생활 기반 구축,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연해주 한인과 러시아인을 포함한 여타 소수민족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윤기 외, 142쪽)

㉒ 연해주가 가져올 민족미래의 실험적인 의미(재이주해 온 재러교포+중국 동북3성에서 장사와 노동을 위해 들어온 재중교포, 건설과 농업부문 노동자로 들어온 북한동포+그리고 투자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온 한국인): “연해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민족 사회의 교류와 협력 증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윤기 외, 186쪽). 첫째, 오랫동안 상이한 체제와 국가에 분산되어 거주하면서도 이질화된 한민족 구성원이 다시 만나 문화적인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인 연대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한민족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동화과정을 경험하여 상호간에 이질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둘째, 전략적으로 미래의 국가운명과 이익을 위해

40) 최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비판」, 『무엇이 정의인가』, 마티, 2011, 237쪽

41)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5쪽.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연해주에서 이들 재외교포를 매개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한반도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향후 형성 될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민족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발표

=> 이 글의 한계(북한 지역 출생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없음. 또한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의 비교분석이 없음. 사할린 지역의 숫자를 맞추어야 함) 및 향후 연구사항(타지역 한인들과의 비교 분석)

=> 이글의 의미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윤기 외, 『연해주와 한민족의 미래』, 오름, 2008
윤인진 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아연출판부, 2010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추가할 것

2. 논문

-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임채완
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한민족연구 제 38집
조정남,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 민족연구 제 8호
추가할 것.